

10주차

## 현대한국어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문체
2차시	현대 맞춤법과 표준어의 형성 과정
3차시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
4차시	현대한국어의 체언과 조사
5차시	현대한국어의 용언과 어미
6차시	현대한국어의 방언

---

## 1차시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문체

---

### 학습 목표

---

-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문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허인영입니다. 한국어의 역사 강의에서 마지막 내용인 현대한국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가 어떤 시기의 한국어를 말하는 것인지, 현대한국어의 문체는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한국어의 기점으로 삼는 19세기 말은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외세의 탐바구니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조선은 왕국이 아닌 황제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대한제국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개혁 정책인 갑오경장이 시행되면서 공문서에는 국문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언문(諺文)으로 불리면서 양반이 아닌 서민과 여성들의 문자로 여겨졌던 한글은 국문(國文)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나아가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현실의 구어와 동떨어진 문어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면서 1945년에 광복이 되기까지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어가 공용어가 되고 한국어가 탄압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민족의 상징이기도 한 한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어를 연구하고 표기법을 개선하는 등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이러한 수난은 끝났지만 곧이어 남북의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 방언들이 접촉하면서 언어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으면서 남북 사이에도 언어의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대한국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음운이나 문법과 같은 언어 자체의 변화에 있어서는 후기 근대한국어와 큰 차이는 없겠지만 표기나 문체 등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대한국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문체가 형성된 과정은 어땠을까요? 개화기 이전까지는 작성자의 사회적 지위와 표기 장르에 따라 다양한 문자와 표기 체계가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구어에서는 모두 한국어를 사용했던 것에 비해 문어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글자와 문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문불일치(言文不一致) 상황이 이어지던 개화기에 서양의 영향을 받은 언문일치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문과 이두는 점차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언문과 언한문은 국문과 국한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체 또한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한문에서 문법 요소만 한글로 표기한 듯한 국한문체가 다수였습니다. (가)는 현토체, 즉 한문 표현에 구결토를 단 것과 같은 문체입니다. (나)는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지은 『서유견문』이라는 책의 한 문장인데요, 한자어와 고유어 문법 표기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 둘 다 한자어나 한자 표현이 주를 이루지만, (가)는 훨씬 한문에 가까운 반면에 (나)는 고유어가 거의 보이지 않고 한글로 표기된 것은 조사나 어미 정도에 그칩니다. 『서유견문』은 독자의 쉬운 이해, 쓰기의 편리함, 언해를 따라서 이런 문체, 국한문체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상소학』이라는 책에서는 한글의 중요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국한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한문의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한문체의 사용은 점차 확대돼서 개화기의 대표 문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화기에는 세로쓰기 되어 있는 글에서 한자의 오른쪽에 그 한자의 음이나 훈을 표기하는 문체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한자의 음을 한자의 오른쪽에 표기한 것이고 (나)는 한자의 음이나 훈을 한자의 오른쪽에 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일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자의 오른쪽에 그 한자의 음이나 훈을 표기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어에서는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톨릭과 개신교 쪽에서는 선교를 위해 처음부터 순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 국문체 성경 등의 문헌을 간행하였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등의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나 주시경과 같은 국어학자들도 언론에서 국문체의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가)는 가톨릭에서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고요. (나)와 (다)는 당시의 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두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글만을 사용하는 국문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특히 소설 분야에서도 국한문체가 주로 사용되다가 20세기 초가 되면 국문체로 통일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소설에서는 국문체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주시경과 이광수 등이 언문일치를 강력하

게 주장하면서 과거의 고전소설에서 보이던 보수적인 문체를 버리고 구어에서 사용하는 문체를 채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신소설의 효시(嚆矢)로 불리는 이인직의 작품입니다. 국한문체나 국문체 고전 소설의 문체를 벗어나서 구어에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한글 전용 운동이 전개되면서 국문체의 세력이 완전히 한국어의 표기와 문체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한글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이고 한자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띄어쓰기는 글을 읽을 때 의미가 끊어지는 단위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서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띄어쓰기가 쓰이기 시작했고 한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아시아에서는 개화기 이전까지 권점을 이용하여 의미가 끊어지는 단위를 나타내는 방법은 존재했지만 전면적인 띄어쓰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면적인 띄어쓰기는 개화기에 서양인이 지은 책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중에서도 띄어쓰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의 주필(主筆)은 미국에 유학해서 띄어쓰기에 익숙한 서재필이었는데, 그는 한글로만 되어 있는 표기를 빨리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는 붙여쓰기가 매우 일반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독립신문』 이후 한동안은 개신교 인사들이 참여한 성경과 신문에서만 띄어쓰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가면 신소설이나 교과서에서도 띄어쓰기가 사용됩니다. (가)는 신소설의 예이고 (나)는 교과서의 예입니다. 이 당시 띄어쓰기의 단위는 철저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절에 가까운 단위를 띄어쓰는 것과 구에 가까운 단위를 띄어쓰는 방식이 공존했습니다.

또한 국한문체에서는 한자의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있는 부분과 한글로 되어있는 부분이 구별이 돼서 띄어쓰기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문체에 띄어쓰기가 정착한 시기에도 국한문체에서는 띄어쓰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는 1920년대가 되면 모든 장르에 전면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

## 2차시 현대 맞춤법과 표준어의 형성 과정

---

### 학습 목표

---

-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한국어의 맞춤법이 표준화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한국어의 표준어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의 맞춤법과 표준어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개화기부터 현대까지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국문체가 정착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즉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한국어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도 싹트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표준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됩니다. 표준어는 어느 나라든 근대에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한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말이 사실상의 표준어처럼 대접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말이 조선시대부터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 시기에 맞춤법과 표준어가 정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한국어 맞춤법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아직 국권이 일본에 침탈되기 전인 1907년에는 학부(學部)라는 기관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문연구소에서는 한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을 연구하여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대한국어 후기까지 이어져 온 관습적인 맞춤법을 1차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나)는 <국문연구의정안>에 담긴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주시경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후의 맞춤법에서도 음소적 표기를 지양하고 형태음소적 표기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보통학교의 교과서를 한국어로 편찬하기 위해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1912년 4월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 3월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그리고 1930년 2월의 언문철자법이 그것인데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이 한글맞춤법 관련 규정들은 교과서를 만들 때 적용하기 위한 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1912년과 1921년의 맞춤법은 종래 써 오던 표기법을 취해서 발음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1930년의 <언문철자법>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과 같은 자음 외에 'ㄷ, ㅌ, ㅊ, ㅌ'과 같은 자음을 받침으로 인정하는 등 형태음소적 표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1933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맞춤법의 전체적인 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총론에는 "한글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글맞춤법통일안>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그 발음을 충실히 적으면서 형태소가 결합하는 환경 등에서는 적절히 형태음소적 표기를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어학회를 이어받은 한글학회에서 사소한 수정이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1970년대에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문교부에서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작업은 1981년 학술원으로 이관되었고 1985년에 학술원 산하 연구 기관으로 국어연구소가 발족하면서 맞춤법 개정 작업은 국어연구소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한글맞춤법>이 고시되고 198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글맞춤법>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동일하지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한국어의 표준어가 성립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함께 쓰이던 시기에 표준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맞춤법의 기준으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이라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표준어를 정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록은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이 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표준어가 구체적으로 사정, 즉 조사, 심사해서 정하게 된 것은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 작업과 함께 표준어 사정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여기에 따르면 당시 조선어학회의 구성원들은 표준어에 대해 표준어는 이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표준어는 시대적으로는 현대, 사회적으로는 중류 계층,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말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부록에는 표준어 단어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간행되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토대가 됩니다. 1935년에는 표준어 사정 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서 표준어를 의결했고 그 결과물은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출간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는 6천 단어 정도가 실려 있었는데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부록에 실린 표준어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실린 표준어는 같은 것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애초에 1929년에 조직된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1947년에 간행된 한글학회 큰 사전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때의 어려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이러한 대사업을 경륜하면서 재정적 기초가 빈약하였고 둘째로는 확정된 표준말과 통일된 맞춤법이 없었다. 그래서 표준말과 맞춤법에 관한 일은 조선어학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근대화와 함께 출판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전에 대한 요청도 많아졌고 이에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지만 필수적으로 맞춤법의 통일과 표준어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글맞춤법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선정된 표준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가)를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나)를 표준어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표준어가 되고 지금까지도 표준어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표준어 사정 작업이 초기 단계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어 사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광복 이후인 1970년대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루어진 표준어를 정리하는 작업은 1988년에 일단락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앞서서 <표준어 규정>이 새롭게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의했습니다.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과 비교하면 '중류사회'라는 계급적 표현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때 사정된 표준어는 1930년대 이후의 언어 변화를 반영한 것이 많습니다. (가)는 이미 일반에 통용되고 있는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입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어가 된 말을 버리고 실제 쓰이는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입니다. (다)는 본말을 버리고 준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후 1991년에는 국어연구소를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면서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이제까지 한국어의 어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법 및 표준어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한 일 중의 하나가 1999년에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이 사

전이 간행되면서 표준어를 한 권의 사전으로 담는 작업은 일단락됩니다. 초판에는 48만여 개의 어휘가 수록되었고 2008년에는 51만여 개의 어휘가 수록된 개정판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지금도 계속 온라인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꾸준히 복수 표준어가 인정되고 그 목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의 표준어만을 인정해 오던 정책에서 벗어나 복수 표준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어기본법>의 목적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존재하였지만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어문 규범 및 표준어와 관련해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어심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차시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

---

### 학습 목표

---

-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현대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한국어의 음운 체계는 근대한국어를 계승하면서도 근대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어의 음운 체계는 한글 표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먼저 개화기 한글 표기의 특징을 살펴본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의 표기는 이전의 연철 표기 방법을 계승하면서도 현대한국어의 분철 표기를 지향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성격상 개화기의 표기는 연철, 분철, 중철, 재음소화 등의 다양한 표기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화기의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 구성은 분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말음이 'ㄱ, ㅂ'이나 'ㄴ, ㄹ, ㅁ, ㅇ, ㄷ'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가)는 체언의 예이고 (나)는 용언의 예입니다. 현대한국어와 비슷하게 분철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음들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철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말음으로 'ㅈ'을 갖거나 'ㅊ, ㅌ, ㅍ, ㅋ' 등의 격음이 올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는 'ㅈ'의 예이고 (나, 다, 라, 마)에서는 'ㅊ, ㅊ', 'ㅊ, ㅌ', 'ㅂ, ㅍ' 등의 중철 표기 또는 'ㅊ, ㅎ', 'ㅂ, ㅎ', 'ㄱ, ㅎ'과 같은 재음소화 표기가 보입니다. 이처럼 개화기의 표기는 대체로 근대한국어 시기의 표기를 이어받았지만 분철로 가는 새로운 표기 경향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화기 초성의 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한국어의 어두 자음군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경음으로 변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경음의 표기를 위해 'ㅅ'계 합용병서가 쓰이기도 하고 'ㅂ'계 합용병서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개화기에는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가)는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예이고 (나)는 특정한 문헌에서 경음을 'ㅂ'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예입니다. (다)는 'ㅅ'에 '-어'가 결합한 것에서 기원한 'ㅅ'을 'ㅂ'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예입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현대한국어와 같은 각자병서가 사용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각자병서로 병음을 표기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개화기의 일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편찬한 서적에서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각자병서를 전면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가)는 개신교 선교사가 편찬한 책의 예이고 (나)는 천주교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의 예입니다. (다)는 한국인이 편찬한 사전인 『국한 회어』의 예입니다.

이처럼 개화기의 경음 표기는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섞여서 쓰이다가 각자병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현대한국어에서는 각자병서로 경음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화기의 자음 체계는 후기 근대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화기에는 파찰음 ‘ㅈ, ㅊ, ㅍ’의 조음 위치가 뒤쪽, 즉 치경경구개 위치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후기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현대까지 평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어 방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찰음 ‘ㅅ, ㅆ’ 또한 근대 후기 및 현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는 치경경구개음으로 발음되고 다른 환경에서는 치경음인 [s]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음들, 즉 비음 ‘ㅁ, ㄴ, ㅇ’과 유음 ‘ㄹ’도 근대 후기나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운론적인 제약과 관련해서 개화기에는 ‘ㄹ’이 어두 초성에 올 수 없는 이른바 두음법칙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외래어에서 어두에 ‘ㄹ’이 오는 단어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제약은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성 위치에서는 근대한국어나 현대한국어와 마찬가지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에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18세기에는 아래아(·)가 비음 운화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ㅙ[aɨ]’, ‘ㅞ[əɨ]’가 단모음화되면서 19세기 말의 단모음 체계는 이전과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ㅟ[oj]’나 ‘ㅠ[uj]’가 단모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20세기 초가 되면 일부 환경에서 ‘ㅟ[oj]’와 ‘ㅠ[uj]’가 ‘ㅟ[öh]’와 ‘ㅠ[ü]’로 단모음화해서 열 개의 모음이 성립됩니다. 이 열 개의 모음 가운데 ‘ㅜ’는 모음의 장단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짧은 ‘ㅜ’일 때는 [u]에 가깝고, 긴 ‘ㅜ’일 때에는 [ø:]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표준발음법 등에는 한국어가 10개 모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ㅟ[öh]’, ‘ㅠ[ü]’는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에서 [we], [wi]라는 이중모음으로 발

음되고 ‘ㄷ’과 ‘ㅌ’의 구별은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ㄷ’과 ‘ㅌ’의 변별이 일찍부터 사라진 남부 방언에서 시작해서 중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현대한국어의 단모음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은 7모음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는 이중모음으로 다음과 같은 모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모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j계 상향 이중모음, (나)는 w계 상향 이중모음입니다. (다)는 ‘ㄴ’인데 이 이중모음은 현재까지도 상향 이중모음인지 하향 이중모음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ㄴ’을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면 중세부터 존재했던 하향 이중모음의 마지막 잔재가 되는 셈이고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게 되면 /j/나 /w/가 아닌 /ɥ/라는 새로운 반모음을 ‘ㄴ’이라는 이중모음을 위해서만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화기의 모음 중에는 자음과의 결합 제약을 갖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순음 ‘ㅁ, ㅂ, ㅍ, ㅃ’은 ‘ㄴ’과 파찰음 ‘ㅈ, ㅊ, ㅍ’은 상향 이중모음 ‘ㅓ, ㅕ, ㅗ, ㅛ’ 등과 결합할 수 없었습니다. 양순음과 ‘ㄴ’의 결합 제약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일어난 원순모음화로 인한 것입니다. 파찰음과 j계 상향 이중모음과의 결합 제약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파찰음의 조음위치가 치경경구개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상향 이중모음 ‘ㄷ’은 비어두 음절에서 어떠한 자음과도 결합되지 못했습니다. ‘ㄷ’은 어두음절이든 비어두음절이든 자음과 결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화기 자료에서 자음 뒤의 ‘ㄷ’이 ‘ㄴ’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제약들은 현대한국어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ㄷ’이 자음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표준발음법에는 ‘ㄷ’을 제외하면 허용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음 뒤에서 ‘ㄷ’은 ‘ㄷ’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화기에는 중부, 서북, 서남, 제주 방언은 대체로 운소로서 음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표기만으로는 음장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부 예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는 ‘꺼내다, 넣다, 떨다’와 같은 어간이 ‘쓰내다, ㄴ다, ㅗ다’로 표기된 것이고 (나)는 ‘게시다, 베다’와 같은 동사가 ‘기시다, 비다’로 표기된 것입니다. 현대한국어에서 ‘ㄴ’나 ‘ㄷ’은 장모음일 때만 ‘ㄴ’나 ‘ㄷ’으로 고모음화를 일으킵니다. 현대한국어에서 운소로서 음장을 갖는 방언에서도 음장은 어두 음절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금은 거의 모든 세대 에서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음조화는 개화기에 이미 상당히 쇠퇴했지만 현대한국어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아래아(·)가 비음운화하면서 ‘ㄴ’과 아래아(·)의 대립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체로 ‘ㅁ, ㅂ’와 ‘ㄴ, ㅍ’의 대립이 중심이 됩니다. 모음조화에 의한 대립은 (가)와 같

이 의성어와 의태어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와 같이 연결어미 ‘-아/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와 같이 양성모음을 갖는 용언 어간에 ‘-아’가 아닌 ‘-어’가 사용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음조화가 쇠퇴하면서 음성모음의 세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 4차시 현대한국어의 체언과 조사

---

### 학습 목표

---

-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현대한국어의 체언 곡용과 조사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체언과 조사를 중심으로 현대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른바 특수어간 교체로 불리는 이형태 교체를 보이는 체언이나 ‘ㅎ’ 발음 체언은 현대어에서 모두 단일한 어간으로 변하였습니다. 가의 특수 어간교체 체언인 ‘나모’와 낚은 ‘나모, 나무’로 굳어졌고 나의 ‘ㅎ’ 발음을 갖는 체언인 ‘나랏’은 ‘나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일부 방언에서는 드물게 ‘하냥’의 흔적을 지닌 ‘하나이’, ‘하나토’와 같은 형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의 발음에서 특이한 변이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ㄷ, ㅈ’이나 ‘ㅌ, ㄷ’을 발음으로 갖는 체언에서 ‘ㄷ, ㅈ’이나 ‘ㄷ, ㅌ’이 ‘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 나, 다, 라)의 예는 체언 어간의 ‘ㄷ, ㅈ, ㅌ, ㄷ’ 등이 ‘ㅌ’으로 발음되는 것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ㅌ’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세한국어에서 근대한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종성의 ‘ㄷ’과 ‘ㅌ’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고 발음은 ‘ㄷ’으로 나지만 표기만 ‘ㅌ’으로 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만일 체언 발음의 제구화, 즉 체언의 발음이 아예 다른 자음으로 굳어져버린 사례라고 한다면 문자로 표기된 ‘ㅌ’이 실제 체언의 발음이 ‘ㅌ’으로 발음이 바뀌는 것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의 발음으로 ‘ㄷ’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생겨났습니다. 이 제약은 매우 강력해서 외래어의 ‘ㄷ’조차도 ‘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t’로 끝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한국어에서는 ‘-이’라는 조사가 뒤에 왔을 때 [로보티]가 아니라 [로보시]로 발음이 됩니다. (나)에서 ‘슈퍼마켓’이라는 단어도 ‘ㄷ’로 끝나는 단어인데 여기에 ‘-에’라는 조사가 결합하면 [슈퍼마켓에]가 아니라 [슈퍼마켓세]로 발음이 됩니다.

곡용과 관련해서 주격조사 ‘-이’와 ‘-가’가 교체하는 것은 현대한국어에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라는 조사 자체는 그 분명한 예가 17세기에 처음 보이는데 근대한국어

문헌에서도 주격조사 '-가'의 예가 흔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음 /i/나 반모음 /j/ 뒤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가)의 예는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분명한 주격조사 '-가'의 예로 '·'라는 하향 이중모음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의 '물이가'는 동남 방언의 주격조사 '-이'의 예로, '-이' 뒤에 '-가가' 붙어서 생겨난 '-이가가' 방언에서 주격조사의 형태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의 곡용형으로, 자음이 후행하는 '나는, 나를, 나도' 외에 /j/라는 반모음이 후행하는 '내'에서는 여전히 '내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와 '-가'의 교체가 문어에서도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라는 형식으로 굳어진 것은 현대한국어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에는 무정물 또는 존칭 유정물 명사에 후행하는 관형격조사로 '-스'이 쓰였습니다. (가)에서 '-스'은 '慈悲(자비)'라는 무정물 뒤에 쓰인 것이고 (나)에서는 '世尊(세존)'이라는 존칭 유정물 뒤에 '-스'이 쓰인 예입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오면 관형격조사로 '-의'가 유정물이 아닌 무정물까지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은 관형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명사 속에서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사이시옷'이라고 부르고 합성어의 표지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에서 '나뭇집'은 '나무를 파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무집'은 '나무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사이시옷이 나타내는 선행명사와 후행명사 사이의 의미 관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 나, 다, 라)를 보시면 A가 B의 기원이나 소유주이거나 A가 B의 단위인 경우, 합성명사의 선행 요소 A와 후행 요소 B 사이의 의미 관계가 (가, 나, 다, 라)의 경우와 같을 때는 사이시옷이 끼어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칫솔'과 '치실'과 같이 한쪽이 동일한 단어인 '치(齒)'이고, 앞에 오는 요소와 뒤에 오는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가 똑같이 이를 닦기 위한 솔, 이를 닦기 위한 실 이렇게 동일한데도 '칫솔'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치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대명사와 관련해서 중세한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 '나', 2인칭 대명사 '너'는 주격과 관형격이 동일한 '나이', '너이'였고, 이 두 가지는 성조로 주격인지 관형격인지 하는 의미를 구별했습니다. (가)의 '나이'는 거성일 때 주격, 평성일 때 관형격이었고, '나이 너이'는 상성일 때 주격, 평성일 때 관형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주격조사 '-가'라는 형태가 모음 /i/와 반모음 /j/ 뒤에서 발달하면서 뒤에서 발달하면서 주격 '나이'와 '너이'는 '내가, 네가'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한국어에서 '나'는 주격일 때 '내가', 관형격일 때 '내, 나의'가 되고 '너'는 주격일 때 '네가', 관형격일 때 '네, 너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와 '네'의 발음이 점차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네가' 대신에 '니가' 또는 '너가'를 사용하거나 관형격에서 '네' 대신에 '니'를 사용하는 것처럼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의 발음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중세한국어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1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항상 '나'를 사용했습니다. 겸양의 1인칭 대명사 '저'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대명사 '저'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명사 또한 '나, 너'와 같은 다른 대명사처럼 조사 결합형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한국어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 나, 다)와 같은 '저'의 조사 결합형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재귀대명사 '저'는 (1인칭 겸양의 대명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점차 모양을 바꿔서 주격을 비롯해서 모든 조사 결합형에서 '제가 아닌 '지'라는 고모음화된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2인칭 대명사 '네'가 1인칭 대명사 '내'와 동음이 되는 것을 피해서 '니'로 형태가 바뀐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주격조사 '-가'의 확립과 함께 변화가 생긴 대명사로 미지칭 '누'가 있습니다. '누'는 의문의 보조사 '-고'가 결합하면 '누고'고, 자체로 '누구냐'라는 문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누고'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서 '누고, 누구'의 형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격에는 이러한 변화가 침투하지 않아서 미지칭 대명사는 주격일 때 '누', 관형격이거나 목적격일 때 '누구'라는 식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한자어에서 기원한 의존명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슈' 또는 '수'로 표기되는 의존명사는 처음에는 '-을밖에 수가 없다'의 구성으로 출현했다가 현대에 와서는 '-을 수밖에 없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빈번하게 쓰이는 의존명사 '것'의 이형태 '거'도 개화기부터 나타납니다.

또 시간과 관련된 의존명사 가운데 '즈음'에서 기원한 '-쯤'은 개화기 무렵에 나타납니다. 부사 중에서는 '아니'가 줄어든 '안', 이유를 물어보는 '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릇'과 같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 의문사 중에 '엇더'하다, 언마, 무삼'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미지칭이 아닌 부정칭으로 널리 나타납니다. (가)에서는 '엇더케'가 (나)에서 '무삼, 언마'와 같은 의문사가 정말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쓰였다기보다는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19세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

## 5차시 현대한국어의 용언과 어미

---

### 학습 목표

---

-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현대한국어의 용언 활용과 어미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현대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사 ‘-이-’의 활용은 중세한국어에서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중세한국어에서는 계사 ‘-이-’ 뒤에 연결어미 ‘-아’나 ‘-어’가 오면 ‘-이다’로 실현되었고 ‘-이-’ 뒤에 연결어미 ‘-고’가 오면 ‘-기’가 약화되어서 ‘-이오’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법은 현대한국어에도 이어졌습니다. (가)에 보이는 ‘-이라서’, ‘-이라고’, (나)에 보이는 ‘-이오’는 모두 중세한국어의 ‘-이다’, ‘-이오’와 같은 형태의 후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지금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규칙적인 활용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아니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니다’는 본래 중세한국어에서 명사 ‘아니’의 계사 ‘-이-’가 결합해서 생겨난 것인데, 현대한국어에서 ‘아니다’는 형용사로 활용을 합니다. 기원적으로 ‘아니다’ 안에는 계사 ‘-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다’의 활용형에도 불규칙 활용을 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의 ‘아니라서’, ‘아니라고’, (나)의 ‘아니오’ 같은 것들이 그러한 중세한국어의 불규칙한 활용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또한 ‘아니어서’, ‘아니고’와 같은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현대한국어에서 계사 ‘-이-’는 모음 뒤에서 생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 널리 나타났고 현대한국어에서는 모음 뒤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주어를 높이는 주체높임과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높임이 있습니다.

주체높임은 중세한국어, 근대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 ‘-시-’로 실현됩니다. 한편 상대높임에는 여러 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등급 가운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계체’와 ‘하오체’는 점차 쓰이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높임의 비격식체에는 ‘해오체’와 ‘해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 ‘-요’는 19세기 말부터 보이지만 기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세한국어에서 객체높임은 선어말어미 ‘-습-’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현대한국어에서 객체높임은 선어말어미와 같은 문법적인 장치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객체높임 어휘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가, 나, 다)의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쭙다, 데리다, 모시다’와 같은 예에서 ‘주다, 묻다, 데리다’가 일반적인 표현이고 ‘드리다, 여쭙다, 모시다’가 객체높임 어휘인데, 객체높임 어휘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등으로 실현되는 객체와 관련된 행위를 표현하면서 사물이나 인물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현대한국어의 종결어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본래 연결어미였던 것이 종결어미로 쓰이는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에서 (가, 나)는 연결어미 ‘-아/어’가 (가)의 예이고 (나)가 종결어미 ‘-아/어’의 예이고요. (다)는 연결어미 ‘-지’, (라)는 종결어미 ‘-지’의 예입니다. (마)는 연결어미 ‘-거든’, (바)는 종결어미 ‘-거든’의 예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뒷부분이 절단이 되면서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로 쓰인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현대한국어에서는 완전히 일반화되었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문법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외국어의 영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의 직역체가 한국어 문법에 광범위하게 침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피동 표현이 있는데요, 현대한국어에서는 ‘무엇무엇에 의하여’와 같은 표현이 흔하게 쓰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전치사 ‘by’에 의한 피동문이나 일본어의 ‘に依(よ)って(ni yotte)’와 같은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동과 관련해서는 피동형에 다시 피동 구성이 결합하는 이른바 이중 피동이 흔하게 쓰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피동 구성을 만들기 위해 피동 파생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가 아니라 ‘-아지다/어지다’를 결합시키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미 피동사인데도 ‘-아지다/어지다’를 결합시키는 예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대한국어 문법에서 보이는 표현들 중에 일본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한국어의 조사 ‘-보다가’에서 유래한 비교격조사 ‘보다’는 부사 ‘보다’로도 쓰이게 되었고, 조사 ‘-뿐’은 문장의 앞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는 ‘-보다’가 비교격 조사로 쓰인 예이고 (나)는 부사로 쓰인 예입니다. (다)는 ‘-뿐’이 조사로 쓰인 예이고 (라)는 ‘뿐만 아니라’ 구성에서 ‘뿐’이 혼자서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본어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보다’는 일본어의 ‘より(yori)’, ‘뿐만 아니라’는 일본어의 ‘のみならず(nominarazu)’와 관련된 것입니다.

---

## 6차시 현대한국어의 방언

---

### 학습 목표

---

- 현대한국어 방언의 구획과 방언별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지역에 따른 한국어의 차이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한국어 시기에는 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언의 어휘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 방언 조사가 활발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언어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 언어의 흔적이나 독자적인 변화의 과정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방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대한국어의 방언은 크게 여섯 개의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중부 방언, 제주 방언인데요. 개괄하자면 동북 방언과 동남 방언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고 고저 악센트가 있습니다. 서북 방언과 중부 방언, 서남 방언에는 음장이 있고 서북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육지 방언과는 많이 다르고 고저 악센트나 음장이 없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방언 구획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광복 이후로 남한과 북한이 70년 넘게 단절되면서 남북 간의 언어 차이도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방언을 여섯 가지로 나누는 구획은 상당히 크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작게 나눌 필요도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방언권의 지역적인 특징을 한국어의 역사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방언들의 차이를 지나치게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음운과 문법으로 나누어서 큰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에 있어서는 방언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남 방언에서 ‘ㅍ’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에서는 ‘ㅍ’과 ‘ㅑ’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한편 파찰음 ‘ㄷ, ㅌ, ㅍ’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치경음에서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서북 방언에서는 여전히 치경음으로 실현됩니다.

이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반모음 /j/를 탈락시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는 /ɕ, ʧ/과 /j/의 결합에서 /j/가 탈락한 예이며 (나)는 본래 파찰음을 갖는 어휘의 파찰음을 폐쇄음으로 변화시킨 예입니다. 모음의 역사적 변화에서는 아래아(·)의 비음운화와 ‘ㅙ, ㅞ, ㅟ, ㅠ’와 같은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방언에서 아래아(·)와 j계 하향 이중모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아래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의 제주 방언 단어들은 중세한국어 문헌에서도 아래아(·)로 나타나는 예로 제주 방언에서 아래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이아래아)’는 반모음 /j/와 단모음 ‘·’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을 나타냅니다. 중세한국어의 어형은 ‘여뵤, 여뵤, 여숫, 여숫’이지만 ‘··’라는 ‘~(이아래아)’라는 이중모음의 후행하는 모음이 아래아(·)인 것을 고려하면 모음 조화의 측면에서 오히려 중세한국어가 ‘··’를 갖는 ‘으뵤’에서 ‘여뵤’로, ‘으숫’에서 ‘여숫’으로 변화를 겪은 것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모음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ㅡ’와 ‘ㅣ’는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동남 방언에서 구별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ㅙ’와 ‘ㅞ’는 중부 이하의 모든 방언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ㅡ’와 ‘ㅠ’, ‘ㅣ’와 ‘ㅤ’의 대립은 서북 방언과 및 동북 방언에서 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상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한에서는 고저의 변별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원순성의 변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모음의 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세한국어에는 음의 높낮이로 의미를 변별했던 성조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방언에서 이 성조가 사라지고 음장으로 변하였지만 모든 방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북, 서남, 중부 방언에서는 음장이 변별적이고 동북 및 동남 방언에는 성조가 여전히 변별적입니다. 제주 방언에서는 성조도 음장도 변별적이지 않습니다. 동북 방언의 성조는 중세한국어의 성조와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갖습니다.

동남 방언의 성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부 지역은 저조, 고조, 저고조의 세 가지 성조 유형이 있고 남부 지역에는 저조와 고조의 두 가지 성조 유형이 있습니다. 중부와 서북, 서남 방언에서는 음장이 변별적이지만 주로 첫 음절에서만 구별되고 중부 방언에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언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존재했다가 중앙어에서는 사라진 어중 자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휘들은 역사적인 음운 변화의 결과가 방언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중 자음은 ‘ㄱ, ㅂ, ㅅ’입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어중 ‘ㅇ’이나 ‘ㄱ’을 보여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를 보면 중세한국어의 ‘물애’도 이전의 ‘물개’가 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중세한국어의 ‘냘’ 형태가 방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어에는 없는 어중의 ‘ㅂ’을 보여주는 방언의 예도 있습니다. (가)와 (나)를 보면 중세한국어에서 ‘방’이나 ‘ㅂ’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이 현대의 중앙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w/로 바뀌었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ㅂ’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어에는 없는 어중의 ‘ㅅ’을 보여주는 방언의 예도 있습니다. (가)와 (나)를 보면 중세한국어에서 ‘ㅅ’을 가지고 있던 단어들이 여러 방언에는 사라졌지만 일부 방언에는 ‘ㅅ’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격조사의 표준어 형태는 ‘-이, -가’인데 이것은 다른 방언에서 두루 쓰입니다. 그러나 방언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의 ‘-래’는 서북 방언, (나)의 ‘-라’는 황해 충남 등 중부 방언, (다)의 ‘-리’는 서북 방언과 중부 방언, (라)의 ‘-이가’는 동북, 동남, 중부 방언, (마)의 개음절 뒤 ‘-이’는 서북, 동남 방언에서 쓰입니다. 목적격조사의 표준어 형태는 ‘-르, -을, -를’로 전국적으로 흔히 쓰이는데 방언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가)의 ‘-으, -르’는 동북, 중부 방언에서 쓰이고 (나)의 ‘-으를, -(으)르, -(으)로’는 동남 방언에서 쓰입니다. 관형격조사는 표기는 ‘의’로 하지만 발음은 ‘계’로 하는 것이 모든 방언에서 일반적입니다.

동남 방언이나 서남 방언에서는 특이한 관형격조사 형태가 쓰이기도 합니다. 종결어미는 문장 유형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으로 나뉘고 상대높임의 등급에 따라 세분됩니다. 방언에 따라서 표준어와 차이가 있는 종결어미가 여럿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언의 평서형 높임 종결어미는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방언의 평서형 낮춤 종결어미로는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방언별 문법 형태에는 제주 방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주 방언은 문법 형태와 어휘 모두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주 방언 문장에서는 진행이나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았/었-’, 완료를 나타내는 ‘-엇/앗/랏-’,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으크-’ 등의 선어말어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방언에는 어휘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Lecture

## 1차시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문체

Hello, This is Heo Inyeo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Inha University. In this final lecture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we will study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including the period it covers and how its style came to be established.

The late 19th century, which is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was a very complex period in world history. In an effort to seek opportunities amid the cracks of external pressures, Chosŏn attempted to transition from a kingdom to an empire and established the Great Han Empire. In 1894, the reform policy of Reform of the Year Kabo was implemented, which stipulated the use of Korean in official documents. As a result, Han'gŭl, which until then had been called "ŏnmun" and had been considered the script used by commoners and women rather than the yangban (noble) class,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national language. Moreover, efforts were made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vernacular and written language in order to pursue linguistic consistency.

However, from 1910, whe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until its liberation in 1945, the Korean Peninsula was a Japanese colony, and Japanese became the official language while Korean was suppressed. In such circumstances, Koreans repeatedly studied the Korean language and improved its orthography to preserve it as a symbol of their national identity. Although the suffering ended with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 subsequent division of the country and the Korean War that followed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language as dialects came into contact. Over 70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linguistic divergence has become increasingly pronounced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ontext of the times, contemporary Korean has developed to its current state. In terms of changes in the language itself, such as phonetics and grammar,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from late modern Korean. However,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spelling and writing styles. Taking into account these historical facts, let us examin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n.

What was the process of forming the writing style of contemporary Korean? Before the Enlightenment period, various scripts and writing systems were used depending on the writer's social status and genre of writing. Although there were soci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in spoken language, everyone used Korean. However, in written language, the characters and styles used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writer's social statu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when this linguistic inconsistency continued, a movement for linguistic consistency influenced by the West began. As a result, the use of classical Chinese writing and "idu" gradually decreased, and "önmun" and mixed written form of "önhanmun (Han'gül and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were renamed to "kungmun" and "kukhanmun", respectively, with social status increasing.

Thus, as the importance of Hangül was emphasized, there was a period of struggle between written Hangül and written mixed styles of Hangül and classical Chinese. At the beginning, the majority of written mixed language styles appeared to be using only Hangül characters for grammar elements. The first sentence, (ㄱ), is called "hyönt'och'e", which means a writing style similar to classical Chinese expressions with "kugyöl" annotation. The second sentence, (ㄴ), is a sentence from a book called 『Söyu kyönmun』 written by Yu Kil-jun. It mixes Chinese characters and native Korean grammar notation.

Both (ㄱ) and (ㄴ) use Chinese characters or expressions as their main style, but (ㄱ) is much closer to classical Chinese, while (ㄴ) hardly shows any native Korean and Hangül is mostly written for particles and verb endings. 『Söyu kyönmun』 specifies that this writing style, "kukhanmun" style, was used for easy understanding, writing convenience, and clarity. Meanwhile, the book 『

Simsang sohak』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convenience of Hangŭl, but assumes that using this "kukhanmun" style leads to the study of classical Chinese.

The use of this "kukhanmun" style gradually expanded and became the representative styl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In addi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 writing style appeared that notated the pronunciation or meaning of a Chinese character to the right of the character in vertical writing. The first sentence, (ㄱㅏ), is a writing style that notates the pronunciation of a Chinese character to the right of the character, while (ㄴㅏ) notates both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to the right of the character.

This notation system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Japan, where this method of notation of adding the pronunciation or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he right side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is notation system was not widely used in Korean and disappeared quickly.

Meanwhile, Catholic and Protestant missionaries published texts such as the "kungmun" or Korean-style Bible in written Hangŭl from the beginning for evangelism purposes. People who studied in the US, such as SŏChae-p'il and Yun Ch'i-ho, and Korean language scholars like Chu Si-gyŏng also promoted the use of written Hangŭl in the media. (ㄱㅏ) is a Korean-language Bible translated by Catholics, and (ㄴㅏ) and (ㄷㅏ) are excerpts from newspapers at the time, all written in written Hangŭl without any Chinese characters. In literature, especially in novels, the style of writing shifted from the mixed script style to the written Hangŭl in the early 20th century.

Especially in novels, along with the use of written Hangŭl, writers such as Chu Si-gyŏng and Yi Kwang-su strongly advocated for linguistic consistency while abandoning the conservative style found in classical novels and adopting a style closer to spoken language. (ㄱㅏ) and (ㄴㅏ) are both works by Yi In-jik,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new fiction or "sin sosŏl". One can observe that the style of writing in novels has shifted away from the styles of classical novels written in either the mixed script style or the written Hangŭl, and has become closer to spoken language.

After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oth South and North Korea developed a movement towards use of pure Hangŭl, and the written Hangŭl completely dominated Korean spelling and writing style. Until the 1990s, there were cases where Chinese characters were written in Hangŭl, but since the 2000s, writing only in Hangŭl has become the norm, and Chinese characters are typically written in parentheses for clarification.

Spacing was developed to indicate a break in meaning when reading written text. Regardless of Eastern or Western culture, there was no spacing in writing during ancient times. Later, spacing began to be used relatively early in the West, while in East Asia,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characters, spacing was indicated using punctuation marks until before the modernization period, but overall spacing was not found. Full spacing first appeared in books written by Westerners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And some Koreans who were influenced by the West also began to implement full spacing. The editor-in-chief of 『Tongnip Sinmun』, Sŏ Chae-p'il, who ha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familiar with the spacing, believed that one of the reasons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riting that was only in Korean was because there was no spacing.

The full spacing in 『Tongnip Sinmun』 was quite radical at that time, where writing without spacing was the norm. For a while after 『Tongnip Sinmun』, full spacing was only implemented in Bibles and newspapers published by Protestant leaders. However, in the 20th century, spacing began to be used in new fiction and textbooks as well. (ㄱㅏ) is an example of new fiction or "sin sosŏl", and (ㄴㅏ) is an example of a textbook. At that time, the unit of spacing was not strictly defined, but a coexistence of spacing between units close to word segments and units close to phrases was used.

In addition, in "kukhanmun", or mixed-writing style, since Chinese characters are used,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part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parts written in Hangul, resulting in a similar effect to spacing. Therefore, even during the period when "kungmun (written Hangŭl)" style established spacing, spacing was not clearly visible in "kukhanmun" style due to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Spacing was fully spread across all genres in the 1920s and was fully established when it was adopted as a standard in the 1933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roposal.>

# Lecture

## 2차시 현대 맞춤법과 표준어의 형성 과정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standard language and spelling of contemporary Korean were formed. In the previous session, we discussed the struggle between "kungmun" and "kukhanmun" styles of writing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process of how the "kungmun" style became established.

Around the same time, between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Japanese occupation, awareness of the need for a standard language in Korean began to emerge, and movements to propose the standard language began to appear. Standard languages typically arise when a modern nation-state is formed, but even before this, in many countries, the language spoken in the most central and influential regions is treated as the de facto standard. In Korea, the Seoul dialect held this position since the Chosŏn Dynasty. Let us now look at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n spelling rules and the making of standard Korean language.

Let's first examin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spelling. In 1907, before Korea was annexed by Japan,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Academy. The Institute researched Korean phonetics and spelling and submitted a report called the <Proposal for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This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vision of the traditional spelling rules for modern Korean.

(가) and (나) are representative opinions contained in the <Proposal for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These views gained influence through

scholars like Chu Si-gyǒng, and subsequent spelling rules moved away from phonetic spelling and toward morphemic spell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 established and announced Korean language orthography for textbooks in ordinary schools. These regulations on Korean orthography for ordinary schools were made in three installments: the Unified Orthography of Korean for Ordinary Schools in April 1912, the Revised Unified Orthography of Korean for Ordinary Schools in March 1921, and the Orthography of Korean in February 1930. These orthography regulations were intended for the notation used in textbooks.

The 1912 and 1921 orthography adopted a phonemic notation that wrote words as pronounced, while 1930's <Orthography of Korean> allowed for the recognition of consonants such as 'ㄷ, ㅌ, ㅊ, ㅌ', and 'ㅍ' as syllable-final consonants, in addition to consonants like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and 'ㅌ'. There is a tendency towards morpho-syntactic spelling in this revised 1930 orthography. In 1933, the Korean Language Society published a proposal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orthography, which became the overall framework for the current orthography.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Unified Proposal for Korean Orthography states that Korean orthography should represent standard pronunciation while conforming to the rules of grammar. The proposal faithfully represents the pronunciation of standard Korean while incorporating appropriate morpho-phonemic not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mbination of morphemes.

Whil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as changed to the Han'gŭl Society, minor modifications have been made, but it has remained largely the same until the 1980s. In the 1970s, the need to revise the Korean language orthography was raised,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pared a draft revision. This work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 1981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 1985, the orthography revision work was assigned to the institute.

<The new Korean orthography> was promulgated in 1988 and implemented from 1989. The nature of <the new orthography> is fundamentally identical to

〈the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lan〉, but unnecessary provisions were deleted, and missing or unrealistic parts were modified. In other words, the current orthography that we use today has its roots in the 1933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lan.

Next, let's look at the process of standardizing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t the time when the Korean script and Sino-Korean script were used together, the perception of a standard language was slowly emerging, although it had not yet been formalized. Notably, the 1912 〈Ordinary School Language Orthography〉 mandated using the "Kyōngsōng dialect as the standard language for orthography". However, beyond this, it is difficult to find other efforts to establish a standard language. This record only shows that there was already an awareness of the standard language during this period.

The concret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language, including the examination and selection of words, began with 〈the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lan〉 and the related effort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The second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lan〉 states that "the standard language is generally based on the Seoul dialect used by the middle class in contemporary society". According to this, we can see that the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t the time had an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s standard language.

They believed that the standard language should be based on contemporary speech used by the middle class. They also thought that the standard language should be shaped by the language spoken in Seoul. In addition, the appendix of 〈the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roposal〉 provided a list of standard words,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later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Standard Korean Words〉. In 1935, a committee for standard language was organized and held several meetings to decide on the standard language. The result was published officially in 1936 as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Collection〉.

The collection contained about 6,000 words. Although many words in the standard language appendix of 〈the Korean Orthography Unification Proposal〉 and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Collection〉 were the same, there were

also differences. All of these efforts originated from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in 1929. In the 1947 Korean Language Society's 『The Grand Dictionary of Korean』 published after independence, it was mentioned that "At that time, there were not just one or two difficulties. Firstly, there was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while undertaking such a massive project. Secondly, there was no established standard language and unified orthography. Therefore, the issues related to standard language and orthography were decided to be dealt with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ith the increase in the publication volume that accompanied modernization, there was a demand for dictionaries, that standardization of orthography and standard language was essential for dictionary compilation. This led to the publication of <Korean Language Orthography Standardization Draft> and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Collection>. However, the selection of the standard language at this time was not without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the standard language, (ㄱ) was treated as non-standard language while (ㄴ) was treated as standard language. Nevertheless, many of the words corresponding to (ㄱ) were eventually adopted as standard language and remain so today, demonstrating that the standardization work at that time was in its early stages.

The language standardization at a national level was not achieved until the 1970s after Korea's liberation. The work of organizing the standard language was completed in 1988 with the announcement of <a new standard language regulation> before the revision of <the Korean orthography>. The standard language was defined as contemporary Seoul language used by cultured people.

It is noteworthy that the term "middle class" was also removed in the 1988 announcement. The standardized language chosen at that time reflected many changes in the language after the 1930s. (ㄱ) was adopted as standard language in its commonly used form, (ㄴ) refers to the actual form of words commonly used in everyday language and discarding obsolete words. (ㄷ) adopted abbreviations as standard language, discarding the original word.

In 1991,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was newly established as a cultural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has pursued various projects related to the language policy of Korean and has accomplished important tasks related to orthography and standard language. The name was changed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2004.

One of the task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esearch accomplished was the publication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in 1999.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dictionary, the work of putting standard language into one dictionary was completed. The first edition contained over 480,000 entries and the revised edition in 2008 contained over 510,000 entries, which were provided online.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continue to be revised and updated online. From 2011 to 2017, multiple standard languages were recognized and the list was announced. This shows a departure from the policy of recognizing only one standard language and a willingness to widely recognize multiple standard languages.

In 2005,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 as shown on screen now. Although there were law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past, such as the law concerning the exclusive use of Han'gŭl and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were mostly symbolic and lacked practicality.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 established a Language Deliberation Council to discuss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language norms and standard language.

# Lecture

## 3차시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spelling and phonology of contemporary Korean. The phonological system of contemporary Korean retains some features from modern Korean while also exhibiting differences. The phonological system of past Korean is reflected in its spelling system, so first,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lightenment period Korean spelling, and then we will explain the phonological system of contemporary Korean based on this.

The spelling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reflects transitional aspects, while inheriting the previous phonetic transcription method but also pursuing syllabication. Due to this characteristic, the Enlightenment period spelling displays various transcriptions such as "phonetic transcription(연철)," "syllabication(분철)," "duplicate spelling(중철)," and "rephonemicization(재음소화)." The combination of particles with nouns and the composition of verb stems with ending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strongly favor the "syllabication" tendency.

However, this principle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final consonant of nouns or verb stems is restricted to "ㄱ," "ㅂ," "ㄴ," "ㅇ," "ㅇ," or "ㄹ." Example (가) is a case of a noun, and (나) is a case of a verb stem. It can be observed that the tendency toward "syllabication" is strong in contemporary Korean as well. Of course, there were cases where these consonants were phonetically transcribed even in cases of nouns or verb stems with those final consonants. On the other hand, when a final consonant such as "ㅈ," "ㅊ," "ㅌ," "ㅍ," or "ㅋ" is present, a different pattern is observed.

Example (가) is a case of "ㅈ," while (ㄴ), (ㄷ), (ㄹ), and (ㅁ) show the "duplicate spelling(중철)" such as "ㄴㅈ," "ㄴㅉ," and "ㅁㅈ," or the "rephonemicization(재음소화)" such as "ㄴㅎ," "ㅁㅎ," and "ㄱㅎ." Thus, while the spelling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mostly continued the spelling system of the modern period, the tendency towards "syllabication" was expanded.

Next, let's take a look at the initial consonant spelling of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initial consonant cluster of medieval Korean changed to a tensed sounds during the modern Korean era.

In the modern Korean era, the 'ㄴ'-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habyong pyöngsö) and the 'ㅁ'-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were used to represent the tensed sound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tendency to use 'ㄴ'-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to represent the tensed sounds became stronger. (가) is an example of tensed sounds represented by the 'ㄴ'-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and (ㄴ) is an example of tensed sounds represented by the 'ㅁ'-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in a specific document. (ㄷ) is an example of the word "씨" that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verb "쓰다(to write)" and a particle "-어", represented by the 'ㅁ'-based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Although t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kakcha pyöngsö) to represent tensed sounds in the modern Korean era, it is very rare.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to represent tensed sounds became prevalent in the Enlightenment period. Especially, in books compiled by Catholic and Protestant missionaries,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was fully adopted to represent tensed sounds. (가) is an example from a book compil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ㄴ) is an example from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by the Catholic Church, and (ㄷ) is an example from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Kukhanhoeö", compiled by Koreans.

Thus, the spelling of tensed sound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used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haracter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leaning towards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As a result, in contemporary Korean, the combination of the same letters is used to

represent tensed sounds.

Next, let's look at the consonant system of the Enlightenment period, which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sonant system of late modern Korea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articulation position of the affricates 'ㅈ, ㅉ, ㅊ' had shifted backwards to the alveolo-palatal position. This has been maintained in most Korean dialects, except for Pyöngan Province, from the late modern period to the present.

The fricatives 'ㅅ' and 'ㅆ' also appear the same as in lat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In other words, in front of the vowel /i/ or the semivowel /j/, they were pronounced as alveolo-palatal sounds, while in other environments, they were pronounced as alveolar sounds, represented by [s]. The other consonants, namely the nasal consonants 'ㄴ, ㄷ, ㄹ' and the liquid consonant 'ㄹ',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t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period.

In terms of phonological constraint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so-called "initial sound rule" still existed, which prohibited the initial sound 'ㄹ' from appearing in the first syllable of a word. However, with the continuous influx of loanwords containing 'ㄹ' in initial position, this constraint has been considerably weakened. In final position, as in contemporary and late modern Korean, only one consonant among 'ㄱ, ㄴ, ㄷ, ㄹ, ㄴ, ㄷ, ㄹ' could be pronounced.

Next, let's examine the vowel system. In the 18th century during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 vowel underwent devoicing, and later, the falling diphthongs 'ㅏ[aɨ]' and 'ㅑ[əɨ]' became monophthongs, resulting i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monophthong system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f represented in a chart, it would be as follows. At this time, the diphthongs 'ㅓ[oɨ]' and 'ㅕ[uɨ]' had not yet undergone monophthongization.

As time passed and the early 20th century approached, 'ㅓ[oɨ]' and 'ㅕ[uɨ]' were sometimes monophthongized into 'ㅓ[ö]' and 'ㅕ[ü]', respectively, resulting in a total of 10 vowels. Of the 10 vowels, the pronunciation of 'ㅏ' varies depending on its length. When short, it is close to [ʌ], and when long, it is

close to [əː].

Even today, the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define Korean as having 10 vowels. However, 'ㅟ[ö]' and 'ㅢ[ü]', are pronounced as diphthongs [we] and [wi], respectively, in almost all regions and generat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ㅟ' and 'ㅢ' has disappeared in almost all regions and generations. This change seems to have begun in southern dialects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ㅟ' and 'ㅢ' disappeared early on and spread to central regions. As a result, contemporary Korean has a 7-vowel system, as shown in the table.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re were diphthongs such as those listed below, which continue to exist today. (ㄱㅟ) is an upward diphthong in the j-type, (ㄴㅟ) is an upward diphthong in the w-type. (ㄷㅟ) is 'ㅟ', and there is much debate as to whether this diphthong is an upward or downward diphthong. If 'ㅟ' is considered a downward diphthong, it would be the last vestige of the downward diphthongs that have existed since the medieval period, and if it is considered an upward diphthong, there is the burden of having to recognize a new semivowel, /w/, exclusively for the diphthong 'ㅟ.'

Some of the vowels in the Enlightenment period had restrictions on their combination with consonants. The bilabial ('ㅁ, ㅂ, ㅍ, ㅃ') and the affricate consonants ('ㄷ, ㅌ, ㅈ') could not combine with upward diphthongs like 'ㅟ, ㅢ, ㅟ, ㅢ'. The constraint on the combination of the bilabial ('ㅁ', 'ㅂ', 'ㅍ', 'ㅃ') and 'ㅟ' was due to the vowel rounding in the early modern Korean period. The constraint on the combination of affricate ('ㄷ', 'ㅌ', 'ㅈ') and j-type upward diphthongs was due to the movement of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affricates towards the alveolo-palatal area in the early modern Korean period. Meanwhile, the j-type upward diphthong 'ㅟ' could not be combined with any consonant in an empty initial sound syllable. 'ㅟ' could not be combined with any consonant in both with or without an initial sound in a syllable. This can be observed from the tendency in the records of the time to write 'ㅟ' as 'ㅟ' after a consonant.

These constraints have persisted in contemporary Korean. Although 'ㅟ' is allowed to be combined with a consonant except for the word '례' according to standard pronunciation rules, in reality, it is often pronounced as 'ㅟ' after

any consonant. It is thought that in the Enlightenment period, central, northwestern, southwestern, and Jeju dialects generally had a duration system as a prosodic featu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duration system solely from the Korean orthography, but there are some examples that suggest its presence.

For example, (가) represents a stem such as ‘꺼내다, 넣다, 떨어다’ written as ‘쓰내다, 늦다, 쫓다’, and (나) represents verbs such as ‘게시다, 베다’ written as ‘기시다, 비다’. In contemporary Korean, only the long vowels 'ㅏ' and 'ㅑ' undergo vowel harmony, resulting in a raised vowel when followed by the high vowels 'ㅡ' or 'ㅣ'. In contemporary Korean, in dialects that have vowel length as a distinctive feature, vowel length is generally distinguished only in the initial syllable, and now most generations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vowel length.

Although vowel harmony was already declining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t still persists in contemporary Korean. During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contrast between "ㅡ" and "·" vowel sounds disappeared due to the devoicing of the "·" vowel sound. As a result, the contrast between "ㅏ, ㅑ" and "ㅓ, ㅕ" became the central contrast in Korean phonology. This contrast is particularly evident in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such as (가), as well as in connecting suffixes such as -ㅏ/-ㅑ in (나). In addition, there are also examples like (다) where the verb stem has a positive vowel and the suffix ‘-ㅓ’ is used instead of ‘-ㅏ’ in contemporary Korean. This demonstrates that the influence of negative vowels has become stronger as vowel harmony has declined.

# Lecture

## 4차시 현대한국어의 체언과 조사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how the grammar system of contemporary Korean was formed, with a focus on nominal and particles. Firstly, nominal that exhibits irregular inflection patterns, also known as special stem replacements, and that with "ㅎ" final consonant have all evolved into a single stem in modern Korean. The special stem replacement nominal '나무' and '나무' in (가) became '나무, 나무', and the nominal '나라' in (나), which had a final 'ㅎ', was standardized to '나라'. In some dialects, forms such as '하나이' or '하나토' that bear traces of '하날' can be found occasionally.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there has been a widespread occurrence of unusual variations in the final sounds of nominal. In nominal ending with 'ㅈ, ㅊ' or 'ㅌ, ㄷ', the final consonants have been realized as 'ㅅ'. Examples include nominal such as (가, 나, 다), and (라), in which the final sounds of the stems 'ㅈ, ㅊ, ㅌ, ㄷ' are pronounced as 'ㅅ'. However, the reason why these words are pronounced with a final 'ㅅ' is not clearly explain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Korean, the distinction between final sounds 'ㄷ' and 'ㅅ' at the end of syllables disappeared, resulting in the pronunciation being 'ㄷ' but being written as 'ㅅ'. If this is regarded as a case where the final sound of the nominal has solidified into a different consonant, then it can also be seen as a case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pronunciation of 'ㅅ' in written characters to that of the final sound of the nominal.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the constraint that 'ㄷ' cannot be the final sound of a nominal emerged in contemporary Korean. This constraint is so

strong that even the foreign word 't' is changed to 'ㅌ'. For example, the word '로봇 (robot)' ends with the letter 't' in English, but in Korean, when the particle '-이' is added after it, it is pronounced as [로보시] instead of [로보티]. The word "슈퍼마켓" (supermarket) in (나) also ends with the consonant 't', and if the particle '-에' is added, the pronunciation becomes [슈퍼마케세] instead of [슈퍼마케테].

Regarding the declination, the shift of the subject case marker "-이" to "-가" is solidified in contemporary Korean. The particle "-가" itself is clearly attested as early as the 17th century,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examples of the nominative case particle "-가"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re common, and it has mainly appeared after vowels /i/ and semivowels /j/ for a considerable period. The example of the nominative case particle "-가" in (가) is a clear example of the nominative case particle "-가" that appeared in 17th-century documents, and it appeared after the downward diphthong "ㅣ". The "-이가" form in the southeastern dialect of Korean, which is created by adding "-가" after "-이" following the word "물" in (나), is used as a form of the nominative case particle in dialects. In (다), the form of the first-person pronoun "나" that follows a consonant, "나는", "나를", and "나도", and the form that follows a semivowel, "내", which still remains as "내가", can be seen.

The replacement of "-이" and "-가" has solidified into the forms of "-이" after consonants and "-가" after vowels in contemporary Korean. In Medieval Korean, the particle 'ㅌ' was used as a genitive marker that followed inanimate or animate nouns. In example (가), '-ㅌ' is used after the inanimate noun '慈悲(자비)', while in example (나), it is used after the animate noun '世尊(세존)'.

During the modern Korean period, the genitive marker '의' began to be used not only for animates but also for inanimates. As a result, the use of 'ㅌ' as a genitive marker gradually decreased, and it began to appear only in compound nouns made up of two or more nouns. This usage is now known as the '사이시옷', and it functions as a marker for compound nouns. In example (가), '나뭇집' can be understood to mean a house that sells wood, while '나무집' without the '사이시옷' can be understood to mean a house made of wo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nouns marked by '사이

시옷' can have various meanings. Looking at examples (가), (나), (다), and (라), when the mea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element A and the following element B in a compound noun is the location, purpose, origin, owner, or unit of B, so, when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element A and the following element B of a compound noun is similar to that of (가), (나), (다), (라),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the '사이시옷' to be inserted.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사이시옷' does appear or not appear, such as in the words '칫솔' and '치실', where one side of the word is the same, '치',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elements, '솔' and '실', is the same for both, meaning a brush for cleaning teeth and a thread for cleaning teeth, respectively.

In Medieval Korean, the first-person pronoun was 나 and the second-person pronoun was 너, and their nominative and attributive cases were the same, expressed as '나이' and '너이' and distinguished by their tonal differences. In (가), '나이' was nominative when in high tone, and attributive when in even tone, and in (나), '너이' was nominative when in rising tone, and attributive when in even tone. Lat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ominative case particle '-가' after the vowel /i/ and semivowel /j/, the nominative forms of '나이' and '너이' changed to '내가' and '네가', respectively.

As a result, in contemporary Korean, '나' means 'I' in the nominative case as '내가', and 'my' in the attributive case as '내' or '나의'. '너' means 'you' in the nominative case as 네가, and 'your' in the attributive case as '네' or '너의'. However, as the pronunciation of 'ㄱ' and 'ㄴ' became less distinct, there is a tendency to distinguish the pronunciation of the first- and second-person pronouns, using '니가' or '너가' instead of '네가', and using '니' instead of '네' in the attributive case.

In Medieval Korean, there was no first-person pronoun for humbling oneself and always used 나, and the humble first-person pronoun '저' appeared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origin of the pronoun '저' is unknown, but like other pronouns such as '나' and '너', it has taken its place in contemporary Korean as a form of combined particle.

As the composite particle forms such as (가), (나), and (다) was prevalently

used, the reflexive pronoun '저', which refers to oneself, underwent a change in form, gradually became fixed in the high vowel form "지" in all inflectional forms, including the nominative case.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the change of the second person pronoun "네" to "니" to avoid homophony with the first person pronoun "내".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particle '-가', there was a change in pronouns, including the emergence of the indefinite pronoun '누' could combine with the interrogative particle '-고' to become '누고' and form sentences like "Who is it?" And this '누고' eventually became a single word, '누고, 누구'. However, this change did not extend to the nominative case, so the indefinite pronoun underwent a change from '누' to '누구' in the genitive or objective case.

In relation to dependent nouns, many classical Chinese-based ones have appeared from modern times to the present day. Especially, dependent nouns spelled as "슈" or "수" initially appeared in the form of the construction "-을밖에 수가 없다", but later changed to "-을 수밖에 없다" in contemporary times. The allomorph '거' of the dependent noun "것", which is frequently used today, also appeared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dditionally, among dependent nouns related to time, "-쯤" originated from "즈음" also appeared around the time of the Enlightenment period. Among adverbs, new ones such as "안", shortened form of "아니", "왜", asking for a reason, and "그릇", indicating a mistake, emerged. Among interrogative pronouns, "엇더하다", "언마", "무삼" and others appeared widely in the 19th century as negative pronouns, rather than indefinite pronouns. In (가), the interrogative pronoun "엇덧케" and in (나), "무삼" and "언마" are used not only to refer to an unknown object, but also to indicate an indeterminate object, rather than being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referring to something unknown. This usage was not well seen before the 19th century.

# Lecture

## 5차시 현대한국어의 용언과 어미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how the grammar system of contemporary Korean was formed through the conjugation of predicates. Firstly, the conjugation of the copula '-이-' belonged to the irregular conjugation in Medieval Korean. As seen in examples (가) and (나), when the connective endings '-아' or '-어' were attached to the copula '-이-', it was realized as '-이다', and when the connective ending '-고' was attached, the final consonant 'ㄱ' was weakened and realized as '-이오'.

Such usage continued in contemporary Korean. The forms '-이라서' and '-이라고' in (가) and '-이오' in (나) can all be considered as later forms of '-이다' and '-이오' in Medieval Korean. Although these forms still exist, they have generally been unified into regular conjugations. '아니다' also shows a similar pattern. It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copula '-이-' of the noun '아니' in Medieval Korean, but in contemporary Korean, '아니다' is used as an adjective. Since the copula '-이-' is included in the original form of '아니다', traces of irregular conjugation remain in the conjugation of '아니다'.

Examples such as '아니라서', '아니라고' in (가) and '아니오' in (나) demonstrate such irregular conjugations in Medieval Korean. Nowadays, forms such as '아니어서' and '아니고' are more commonly used in contemporary Korean. In contemporary Korean, the copula '-이-' can be omitted after a vowel, a phenomenon that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8th century, became prevalent in the 19th century, and is now more common to omit the copula '이' after a vowel in contemporary Korean. In contemporary Korean, there are two types of honorifics realized grammatically: the subject honorific, which raises the subject, and the addressee honorific, which raises the listener.

The subject honorific is realized through pre-final ending "-사-", just like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Korean. On the other hand, the addressee honorific has several levels. Among the six levels, the 하게 style and 하오 style levels are becoming less common among younger genera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forms of the addressee honorific i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uffix '요'. This suffix "요" appeared in the late 19th century, but its origin is difficult to trace.

In Medieval Korean, the addressee honorific was realized through the pre-final ending '-습-'. In contemporary Korean, the addressee honorific is not realized through grammatical devices like pre-final endings, but rather through vocabulary. For example, in (가), (나), and (다),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쭙다', '데리다', and '모시다' are commonly used expressions, '주다', '묻다', '데리다' are commonly used expressions, while '드리다', '여쭙다', '모시다' are addressee honorific vocabulary. The addressee honorific vocabulary expresses actions related to the object realized in the sentence, such as the object or adverbial, while raising the addressee, be it a thing or a person.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the final endings in contemporary Korean is that some were originally used as connective endings. For example, (가) and (나) were originally examples of the connective endings '-아' and '-어', respectively, while (나) is now a final ending with the same forms of '-아' and '-어'. Similarly, (다) is an example of the connective endings '-지' and (라) is an example of the final endings '-지'. (마) is an example of the connective endings '-거든' and (바) is an example of the final endings '-거든'. These were connective endings that have become final endings as well when the latter part of the sentence is truncated. These phenomena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have become fully generalized in contemporary Korean grammar.

On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contemporary Korean grammar is the strong influence of foreign languages, particularly the widespread infiltration of direct translation from foreign languages. One such example is passive expression. In contemporary Korean, expressions such as "~에 의하여" are commonly used, which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passive expressions using

the preposition "by" in English or expressions like "によつて(ni yotte)" in Japanese. Furthermore, in relation to passive voice, the so-called double passive, in which a passive construction is combined with another passive construction, is commonly used in contemporary Korean.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as the combination of passive derivational affixes to create a passive formation has decreased and the combination of the verbs '-아지다' and '-어지다' has increased, more and more examples of verbs already in the passive form being combined with '-아지다' and '-어지다' have emerged. There are also expressions in contemporary Korean grammar that can be seen as influenced by Japanese.

For example, the comparative case particle '보다' derived from the particle '보다가' in early modern Korean can now also be used as an adverb, and the particle '뿐' can appear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In (가), '-보다' is an example of a comparative case particle, while (나) is an example of an adverb. In (다), '-뿐' is an example of a particle and in (라), in the phrase '뿐만 아니라', '뿐' can now be used alone. These phenomena are also seen in Japanese, where '보다' is related to the verb 'より(yori)' and '뿐만 아니라' is related to the expression 'のみならず(nominarazu)'.

# Lecture

## 6차시 현대한국어의 방언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dialects of contemporary Korean. Even during the Medieval period, there would have been regional differences in Korean. And during the modern period, materials that confirm dialectal vocabulary or expressions mainly in the southern region are also found. However, it can be said that it was only from the 20th century, when dialectal investigations became active, that the full picture of dialects became clear.

Dialects not only demonstrate regional differentiation of language, but also carry the traces of the language's past or the process of independent change. Therefore, examining Korean dialects is significant for concluding our discussion on the history of the language. The dialects of contemporary Korea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six dialect areas:

Northwestern dialects, northeastern dialects, southwestern dialects, southeastern dialects, central dialects, and Jeju dialects. In general, the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dialects are historically related and have pitch accents. The northwestern, central, and southwestern dialects have duration, and the northwestern dialects did not undergo palatalization. The Jeju dialec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inland dialects, with no pitch accent or duration. Although the dialectal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ivided in this way, sinc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on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for more than 70 years.

The division of Korean dialects into six regions is a relatively broad classification, so it may be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smaller subgroups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However, in this lecture, w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ialects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rather than delving too deeply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dialects, we will examine their majo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honology and grammar.

First, let's take a look at phonology. In terms of consonants, the differences between dialects are not significant. However, in the southeastern dialect, the consonant 'ㅆ' does not exist in the consonant system of some region. In this kind of dialec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쌀' and '살.' On the other hand, the affricate consonants 'ㅈ, ㅊ, ㅆ' changed their articulation position from dental to palatal through the process of palatalization during the modern Korean language period. However, in the northwestern dialect, they are still realized as dental affricates.

In this dialect, instead of palatalization, there is a change that eliminates the semi-vowel /j/. For example, in (가), the semi-vowel /j/ is elided when it is combined with the consonants 'ㄷ, ㅌ,' and in (나), the original affricate sound of the vocabulary was changed to a stop sound. In terms of historical changes in vowels, the devoicing of the "·" vowel, and the monophthongization of the falling diphthongs such as 'ㅞ, ㅟ, ㅠ, ㅡ' are distinctive phenomena. As a result, the "·" vowel and j-type falling diphthongs have disappeared in almost all dialects. However, the "·" vowel still remains in the Jeju dialect.

Jeju dialect words in (가) with the "·" vowel appear in Medieval Korean literature as well, indicating that the Jeju dialect has maintained the "·" vowel. The word for (나) in the Jeju dialect, '·(이아래아),' represents a falling diphthong consisting of the semivowel /j/ and the monophthong '·.' Medieval Korean had inflections of 여덟, 여덯, 여섯, and 여섯, but considering that the following vowel of the diphthong '·(이아래아)' is a lower vowe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vowel harmony, Medieval Korean underwent a change from the '으덯' with '·(이아래아)' form to the '여덯' form and from the '으섯' form to the '여섯' form.

Other vowel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region. For example, except for some parts of Kyōgsangbuk-do, 'ㅡ' and 'ㅜ' are not

distinguished in the southeastern dialect. 'ㅢ' and 'ㅣ' are becoming indistinguishable in all dialects below the central region. The opposition between 'ㅡ' and 'ㅓ' and between 'ㅜ' and 'ㅜ' is tending to be neutralized in the northwestern and northeastern dialects.

The changes described above reveal an interesting trend in which the distinction between high and low pitch is decreasing in South Korea, while the distinction between rounded and unrounded vowels is decreasing in North Korea. In the long term, it is possible that the number of monophthongs will decrease.

Medieval Korean featured tonal distinctions, which were used to differentiate meanings based on pitch. While many dialects have lost tonal distinctions, they have been replaced by vowel lengthening, although this is not true for all dialects. In the dialects of northwestern, southwestern, and central Korea, vowel lengthening is still used to differentiate meaning, while tonal distinctions still exist in the dialects of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Korea. In Jeju dialect, neither tonal nor vowel lengthening distinctions exist. The tonal distinctions in northeastern dialects correspond regularly with the tonal distinctions in Medieval Korean.

In the southeastern dialects, there are regional variations, with the northern regions having three tonal types (low, high, and falling) and the southern regions having two tonal types (low and high). In central, northwestern, and southwestern dialects, vowel lengthening is still used to differentiate meaning, but mostly in the first syllable and even this distinction is disappearing in the central dialects. Some dialects feature consonants in the medial position that were present in Medieval Korean but disappeared in central Korean. Such vocabulary has attracted attention for showing how historical sound changes are manifested differently in dialects.

The consonants in question are 'ㄱ, ㅃ, ㅅ'. In contemporary Korean, words that show the Medieval Korean medial consonants 'ㅇ' or 'ㄱ' are not commonly seen. By looking at (가), one can infer that the Medieval Korean '물개' has changed to '물애'. By looking at (나),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Medieval Korean '납' form remains in some dialects. There are also examples of dialects

that show the medial 'ㅁ' that is not present in central Korean. By looking at the words (가) and (나),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words that had 'ㅁ' or 'ㅁ' in Medieval Korean changed to /w/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n modern central Korean, they remain as 'ㅁ' in some dialects.

There are also examples of dialects that show the medial 'ㅅ' that is not present in central Korean. By looking at the words (가) and (나),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words that had 'ㅅ' in Medieval Korean disappeared in many dialects, they remain as 'ㅅ' in some dialects.

Next, let's examine the grammar. The standard form of the nominative particle is '-이, -가', which is widely used in various dialects. However, depending on the dialect, different forms are also used.

The '-래' in (가) is used in the northwest dialect, the '-라' in (나) is used in the central dialects such as Hwanghae and Ch'ungnam, the '-리' in (다) is used in the northwest and central dialects, the '-이가' in (라) is used in the northeast, southeast, and central dialects, and the '-이' after an open syllable in (마) is used in the northwest and southeast dialects. While the standard forms of object particles are commonly expressed as '-르, -을, -를' throughout the country, different forms may be used depending on the dialect. As shown in (가), in the northeastern and central dialects, '-으, -르' are used, whereas in the southeastern dialect, '-으를, -(으)르, -(으)로' are used, as in the example of (나). The suffix '-의' is written as '의' in standard Korean, but pronounced as 'ㅁ' in all dialects.

However, in the southeastern and southwestern dialects, unusual forms of this suffix may be used. Sentence-final endings in Korean vary depending on sentence type, such a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suggestive, and exclamatory, and are further distinguished by politeness level for addressee. Different dialects exhibit a number of sentence-final endings that differ from those in standard Korean, but here provides only a few examples of sentence-final endings in the declarative form. Some dialects use sentence-final endings that express heightened politeness, like this. Also others use endings that express lowered politeness.

The grammar forms of Jeju dialect have not been included in our discussion so far. The Jeju dialect features unique grammar and vocabulary compared to other dialects, and is therefore examined separately. Jeju dialect sentence examples shown on screen illustrate how the sentence-final endings ‘-았/었-’ can indicate ongoing actions or states, ‘-엇/앗/랴-’ can indicate completion, and ‘-으크-’ can indicate intention or speculation. Jeju dialect also contains a variety of interesting vocabulary, some of which is shown on screen.

# 讲义

## 1차시 현대한국어의 성립과 문체

大家好。我是仁荷大学韩国语文学系的许仁宁。本节课我们将学习韩国语历史讲座中的最后一个部分，即现代韩国语。针对现代韩国语指的是哪一个时期的韩国语，现代韩国语的文体是如何成立的等问题，本节课将一起探讨。

现代韩国语的起点开始于19世纪末，这一时期被认为是世界历史上十分复杂的时期。在这个时期，为了能够在外部势力的夹缝中求生存，朝鲜王朝尝试着从“王国”变成了“皇帝国”，于是建立了“大韩帝国”。另外，1894年随着“甲午更张”这一改革政策的实行，规定公文需要使用“国文”。此前，韩文一直被称为谚文，被统治阶级摒弃，只用于平民和女性之间，（但随着政策的实行），韩文变成了“国文”。不仅如此，随着兴起了追求“言文一致”的运动，人们开始不断努力缩小现实中口语体和文语体之间的差距。

但1910年日本侵略，韩国丧失主权。之后直到1945年光复为止，朝鲜半岛一直都是日本的殖民地。日语成为了（朝鲜半岛的）官方语言，而韩国语受到了镇压。在这种时代背景下，韩国人为了保护“韩国语”这一民族象征，在研究韩国语、改善标记方法上不断思考。1945年光复后，虽然结束了蒙难生活，但紧接着又发生了南北分裂和6.25战争，随着方言之间的相互接触，语言也发生了不小的变化。此后，南北分裂了70余年，南北之间的语言异化现象也越来越严重。

现代韩国语就是在这种时代背景下发展至今的。虽然现代韩国语在音韵或语法等语言自身的变化上和后期的近代韩国语之间并没有较大差别，但在标记和文体上却存在很大的变化。考虑到这些历史事实，我们来看一下现代韩国语的形成过程。

现代韩国语文体的形成过程究竟是怎样的呢？在开化期之前，根据作者的社会地位和标记的类型，使用了不同的文字和标记体系。虽然存在社会和地理上的差异，但口语均使用韩国语。与之相比文语体中根据社会地位的不同，使用的文字和文体也完全不同。因此这种“言文不一致”的状况一致持续到了开化期。随着西方思想的影响，“言文一致”运动就此展开。汉文和吏读的使用逐渐减少，不仅谚文和谚汉文的名称被改成了“国文”和“国汉文”，而且社会地位也有了

极大的提高。

像这样，随着韩文的重要性被不断强调，文体或国文体和国汉文体之间展开了较长时间的较量。在初期，大多数国汉文体中只有汉文语法要素用韩文标记。“가”是“县吐体”的例子。也就是指在汉文表达上添加口诀吐的一种文体。“나”是俞吉濬所著《西游见闻》中的句子。汉字词和固有词的语法标记混用在一起。

虽然“가”和“나”两者都是以汉字词或汉字表达为主，但“가”更接近于汉文，与之相反的是“나”中几乎看不到固有词，用韩文标记的只有助词或语尾。《西游见闻》使用了读者更易理解、书写更为便利的谚解形式。对此，书中明确指出了使用国汉文体的事实。另外，《寻常小学》一书在强调韩文重要性和便利性的同时，说明了在汉文学习的前提下才能使用国汉文体。

这些国汉文体的使用逐步扩大，成为了开化期的代表性文体。另外，在开化期竖写的文章中，汉字的右侧还出现了标记汉字音或训的文体。“가”是把汉字的音标记在汉字右侧的例子。“나”是把汉字的音或训标记在汉字右侧的例子。

这种标记方式受到了日本的影响。在日本，像这样，在汉字的右侧标记汉字的音或训的方式其实很早之前就已经开始。但这种标记方式在韩国语中并没能长期使用，很快就消失不见了。

另外，天主教和新教方面，为了传教，出版了从一开始就只用韩文标记的国文体《圣经》等文献。从美国留学归来的徐载弼、尹致昊等，以及像周时经一样的韩国语学者，通过舆论推进了国文体的使用。“가”是天主教翻译的韩国语圣经。“나”和“디”是当时报刊中摘录的内容。可以看出，这些内容完全不使用汉字，而是仅使用韩文的国文体形式。另外，文学，尤其是小说领域也主要使用国汉文体。到了20世纪初，出现了统一国文体的倾向。

特别是在小说中使用了国文体形式。同时周时经、李光洙等一边强烈主张“言文一致”，一边摒弃了过去古典小说中保守的文体形式，采用了口语中使用的文体。这是它的一大特点。李人植被认为开辟了新小说的先河。“가”“나”都是他的作品。可以发现这些小说摆脱了国汉文体或国文体古典小说的问题，表现出接近口语的样貌。

日本帝国主义殖民时期结束后，韩国和朝鲜均开展了“韩文专用”运动。国文体势力已牢牢掌握了韩国语的标记和文体。截止到20世纪90年代，还存在用韩文标记汉字词的情况。但进入21世纪后，基本上仅使用韩文标记，汉字一般作为附加标记体现在括号内。

在阅读文字时，为了方便展现意义断开的单位，制作出了隔写的形式。不论东西各方，古代都不存在隔写。后来西方较早开始出现了隔写的形式，在受汉文强烈影响的东亚，开化期之前虽然存在使用“圈点”的形式展现意义断开的单位。但并没有全面表现隔写的方法。在开化期由西方所著的书中首次出现了全面隔写的内容。

此后，在受到西方影响的这些韩国人中出现了实施全面书写的人。《独立新闻》的主编是徐载弼，他留学美国且熟悉隔写。他认为之所以很难快速理解那些只用韩文标记的内容，就是由于不隔写的缘故。

当时的《独立新闻》普遍不采用隔写的形式，因此上述观点的提出打破了常规。《独立新闻》之后的一段时间里，在只有基督教人士参与的圣经和报刊上全面进行了隔写。但是进入20世纪之后，新小说或教科书中也开始使用隔写的形式。“가”是新小说的例子，“나”是教科书的例子。虽然当时并没有完全确定隔写的单位，但是存在以词组为单位和以句子为单位的两种形式。

另外，在国汉文体中，由于使用了汉字，所以分成了汉字部分和韩文部分，产生了与隔写相似的效果。因此，即使是在确定了国文体隔写规则的时期，也很难看到国汉文体中的隔写现象。隔写在进入20世纪后，普及到了所有的体裁中，在1933年的《韩文拼写法统一案》中被当做一大标准，最终被完全确立下来。

# 讲义

## 2차시 현대 맞춤법과 표준어의 형성 과정

本节课我们来看一下现代韩国语的拼写法和标准语的形成过程。从开化期到现代，国文体和国汉文体相互较量最终国文体脱颖而出。对这一内容我们之前已进行了讲解。

在同一时期，即从开化期到日本帝国主义殖民时期这段时间内，产生了对韩国标准语的认识，不久之后就出现了限制标准语的动向。无论是哪个国家，标准语都是随着近代民族国家的形成而产生的。但在此之前，某一国家最为核心的地区所使用的语言具有最为强烈的影响力，因此实际上常被当作标准语看待。韩国的首尔话从朝鲜时代开始就处于这种地位。本节课我们一起看一看现代韩国语时期的拼写法，以及标准语的制定与发展过程。

首先来看一下现代韩国语拼写法的形成过程。1907年韩国的国家主权还未被日本侵占，在“学部”这一机构设立了国文研究所。国文研究所研究韩国语的音韵和拼写法，提交了名为《国文研究议定案》的研究报告。这成为了对延续至近代韩国语后期的“习惯性拼写法”进行第一次整顿的契机。

“가”和“나”是《国文研究议定案》中的具有代表意义的意见。在周时经等学者的支持下，这种观点的影响力逐渐增强，后来的拼写法也摒弃了音素标记法，而选择了形态音素标记法。在日本帝国主义殖民时期，为了用韩国语编撰不同学校的教科书，日本曾制定并公布过韩文拼写法。1912年4月的《普通学校用谚文缀字法》，1921年3月的《普通学校用谚文缀字法大要》，以及1930年2月的《谚文缀字法》。这些韩文拼写规定分三次制定而成。与制作教科书时使用的标记有关。

其中1912年和1921年的拼写法采取惯用的标记方法，主要按照发音进行标记，即音素标记的方法。1930年，作为第二次修改的《谚文缀字法》，其中除了辅音“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以外也把辅音“ㄷ, ㅌ, ㅍ, ㅑ, ㅓ, ㅕ”等看成了收音。表现出了像形态音素标记法发展的样貌。1933年随着朝鲜语学会发表了《韩文拼写法统一案》，现在使用的拼写法的整体框架开始显现。

《韩文拼写法统一案》的总论部分记载着“韩文拼写法按照发音标记标准语，但要符合语法

和原则。”可以说该《韩文拼写法统一案》以标准语为对象，详细记录其发音，在语素结合的环境中适当添加形态音素的标记。

此后，继承朝鲜语学会的韩文学会虽然进行了细微的修改，但直到二十世纪八十年代为止，几乎一直保持不变。二十世纪七十年代有人提出了有必要修改拼写法的提案，因此文教部制定了修订试行方案。这项工作于1981年移交学术研究院，1985年国语研究所成立，隶属于学术研究院。于是拼写法修订工作分配给了国语研究所负责。

此后，1988年公布了《韩文拼写法》，1989年开始实施。虽然《韩文拼写法》的性质和《韩文拼写法统一案》基本相同，但内容上删除了不必要的条款，并对不完善或不切实际的部分进行了修改。也就是说现在我们所使用的拼写法源于1933年的《韩文拼写法统一案》。

下面来看一下现代韩国语标准语的成立过程。在国文体和国汉文体同时使用的时期，虽然对标准语的认识还没有明文规定，但已慢慢产生了（认知）。引人注目的是1912年《普通学校用谚文拼写法》中，以拼写法为标准，规定了把“京城语”当做标准语。但是除此之外，由于很难找到在制定标准语过程中所做的其他努力，因此该记录只是表明了这个时代已经存在对标准语的认识。

标准语要经过审定，即调查和审查后才能确定下来。朝鲜语学会同时进行《韩文拼写法统一案》相关的工作与标准语审定相关的工作。《韩文拼写法统一案》总论第二项有如下内容。标准语大致指现在中流社会使用的首尔话。由此可见，当时朝鲜语学会的成员们对标准语有着“标准语就该是这样”的认知。

从时代上看是现代，从社会上看是中流阶层，从地域上来是首尔，他们认为标准语应当以这些为基础。而且韩文拼写法统一案的附录中展示了标准语单词。这成为了后来发行的《查定朝鲜语标准语集》的基础。1935年组织标准语审定委员会开展了多次会议决议标准语最终1936年出版了《查定朝鲜语标准语集》并正式发表。

《查定朝鲜语标准语集》刊登了约六千单词。韩文拼写法统一案的附录中展示的标准语和《查定朝鲜语标准语集》展示的标准语虽然存在很多相同之处，但也存在着差别。这一切都始于1929年组织的朝鲜语词典编撰会。在光复后1947年发行的韩文学会大词典中有这样一句话。“当时困难的事情不止一两件。第一，经历这种大项目时国家的财政却非常薄弱。第二，没有明确的标准语和统一的拼写法。所以有关标准语和拼写法的事情由朝鲜语学会决定。”

随着近代化的发展，出版量增加，对词典的要求也越来越多，于是产生了编撰词典的想法。但意识到（编撰之前）必须先有统一的拼写法和标准语。因此出版了《韩文拼写法统一案》和《查定朝鲜语标准语集》。当然，当时选定的标准语也并非没有问题。在《查定朝鲜语标准语

集》中，把“가”看成了非标准语，把“나”看成了标准语。但之后却把对应“가”的内容变成了标准语，并一直作为标准语使用至今。这充分说明了当时标准语的审定工作还处于起步阶段。

从国家层面对标准语进行审定发生于光复之后的20世纪70年代。从那时开始，整理标准语的工作于1988年告一段落。1988年，在修改韩文拼写法之前，重新公布了标准语的规定。这里把标准语规定为“接受教育的人普遍使用的现代首尔话”。

与1933年《韩文拼写法统一案》中“现在中流社会中使用的首尔话”相比，引人关注的是去掉了“中流社会”这一阶级性的表现。这是审定的标准语反映出很多20世纪30年代之后的语言变化。“가”是已经在标准语中被看成一般通用形态的内容。如“나”所示，去除了日常生活中的“死词”，将实际使用的形态确定为标准语。“다”是去掉了原本形态，而是把缩略语当成标准语的内容。

在此后的1991年，作为文化部的附属机构，新成立了国语研究所，并命名为国立国语研究院。国立国语研究院迄今为止不断推进与韩国语语文政策相关的各种事业。并做出了许多与拼写法和标准语相关的重要事情。国立国语研究院于2004年改名为国立国语院。

国立国语院所做的工作之一就是于1999年发行了《标准国语大词典》。随着该词典的发行，将标准语纳入词典的工作终告结束。初版收录了48万多个词汇，2008年收录了51万余的词汇，修订版提供线上服务。《标准国语大词典》的内容至今仍持续进行网络修订。从2011年至2017年，“复数标准语”被持续认定，名单被公布。这摆脱了过去只承认一种标准语的政策，展现了广泛承认多种标准语的态度，从这一点来看具有意义。

另外，2005年制定了国语基本法。国语基本法的目的如图所示。在以前的韩文专用相关法律或文化艺术振兴法等上面也存在与韩国语相关的法律条款，但仅限于象征性水平，实效性不大。在国语基本法中，为了审议语文规范及标准语相关的重要事项，设立并运营国语审议会。

# 讲义

## 3차시 현대한국어의 표기와 음운

本节课我们将学习现代韩国语的标记和音韵。现代韩国语的音韵体系在继承近代韩国语的同时，与近代韩国语之间也存在着差异。过去韩国语的音韵体系反映在韩文的标记上，因此先观察开化期韩文标记的特征，然后再以此为基础说明现代韩国语的音韵体系。

开化期的标记在继承之前“连缀”标记形式的同时，又具备了向现代韩国语“分缀”标记形式过渡的性质。从这种性质来看，开化期的标记具有多种特征，如连缀、分缀，重缀、再音素化等。开化期的[体词加助词]、[谓词词干加语尾]的构成形式呈现出较强的分写趋势<sup>기</sup>。

但这一原则仅限定在了体词或谓词词干末尾音为“ㄱ, ㅍ”或“ㄴ, ㄹ, ㅇ, ㄷ”的情况下。“가”是体词的例子，“나”是谓词的例子。由此可见，与现代韩国语相似的分写趋势较强。当然，虽然有一些体词或谓词的词干是以这些辅音结尾，但也存在连写的情况。另外，当末尾音是“ㄷ”或送气音“ㅌ, ㅍ, ㅊ, ㅋ”时，表现出了不同的样子。

“가”是“ㄷ”相关的例子，“나, 다, 라, 마”分别展现了“ㄴㅌ, ㄴㅍ, ㅍㅍ”等重缀标记现象，以及“ㄴㅎ, ㅍㅎ, ㄱㅎ”等再音素化标记现象。虽然开化期的标记大体继承了近代韩国语时期的标记但却扩大了转变为分写的标记趋势。

下面来看一下开化期初声的标记现象。近代韩国语时期的语头辅音群到了近代韩国语时期变成了紧音。近代韩国语时期为了标记紧音，使用了“ㄴ”系列的合用并书，和“ㅍ”系列的合用并书。开化期用“ㄴ”系列的合用并书标记紧音的趋势变得越来越强。“가”是使用“ㄴ”系列的合用并书标记的例子，“나”是在特定文献中用“ㅍ”系列的合用并书标记紧音的例子。“쓰다”与“-어”结合形成“써”，例句“다”展示了用“ㄴ”系列的合用并书标记“써”的内容。

近代韩国语时期，在标记紧音时，与现代韩国语一样，也存在使用各自并书的现象，但是却非常罕见。正式使用各自并书标记紧音是在开化期。特别是在天主教和新教的传教士编纂书籍的过程中，为了标记紧音，全面采用了各自并书的形式。“가”是新教传教士编纂的书籍，“나”是把天主教的圣经翻译成韩国语的例子。“다”是韩国人编撰的词典《国汉会语》的例子。

像这样，开化期的紧音标记先是采用合用并书与各自并书混用的形式，之后呈现出向各自并书转换的趋势。最终，在现代韩国语中采用各自并书的形式标记紧音。

开化期的辅音体系和后期近代韩国语的辅音体系相同。开化期破擦音“ㄷ, ㅌ, ㄸ”的调音位置在后端，即向齿茎硬口盖的位置移动。从后期近代韩语时期到现代，除平安道以外，大部分韩国语方言都保留着这种形式。

近代后期和现代的摩擦音“ㄴ”或“ㄸ”没有区别。即在元音/i/或半元音/j/之前，发齿茎硬口盖音，在其他的环境中发齿茎音[s]。除此之外的辅音，即“ㄱ, ㄴ, ㅇ”和流音“ㄹ”在近代后期和现代韩国语中也没有出现大的差别。

从音韵论上的制约条件来看，开化期“ㄹ”不能出现在初声位置上，这个所谓的“头音规则”依然存在于现代韩国语中。但由于外来词词头位置上不断出现以“ㄹ”开头的单词，所以可以说这个制约条件已弱化了不少。对于终声位置来讲，近代韩国语和现代韩国语一样，在“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之中只有一个辅音可以发声。

下面来看元音。18世纪的近代韩国语时期，“ㅏ”发生了非音韵化现象，没过多久，下向复元音“ㅏ [aj]”和“ㅑ [aj]”也发生了单元音化现象，19世纪末的单元音体系和之前的相比发生了很大的变化。如表所示。在这一时期，“ㅓ [oj]”和“ㅕ [uj]”还没有发生单元音化的现象。

没过多久就进入到了20世纪，在一部分的环境中“ㅓ [oj]”和“ㅕ [uj]”发生单元音化现象，变成了“ㅓ [ü]”和“ㅕ”，成为10元音体系。在10个元音中，“ㅓ”根据元音长短的不同发音产生了变化。发短音“ㅓ”的时候，接近于[ʌ]，发长音“ㅓ”的时候，接近于[ø:]。

现行的标准发音法等也规定了韩国语具有10个元音。但“ㅓ [ö]”和“ㅕ [ü]”两个音几乎不论哪一地区哪一代人都发复元音[we]和[wi]。几乎所有的地区和人们都没有对“ㅓ”和“ㅕ”作出区分。“ㅓ”和“ㅕ”的区别最早消失于南部方言。之后这种变化由南部方言开始，扩散到了中部地区。最终，现代韩国语的单元音如画面所示，为7元音体系。

开化期的复元音如下所示。而且这些复元音一直延续到现在。“가”是j系列的上向复元音，“나”是w系列的下向复元音。“다”是“ㄷ”，但这个复元音现在究竟是被看成上向复元音还是下向复元音还存在很多争议。如果把“ㄷ”看成下向复元音，那么可以认为它是从中世纪开始就存在的下向复元音的最后一个痕迹。如果看成上向复元音，它既不是/j/也不是[w]，而是为了“ㄷ”这一复元音重新认定一个新的音[uj]。

开化期的有许多的元音在和辅音相结合时存在限制条件。两唇音“ㅍ, ㅂ, ㅃ, ㅄ”和“ㅡ”，摩擦音“ㄷ, ㅌ, ㄸ”和上向复元音“ㅑ, ㅓ, ㅕ, ㅗ”等无法结合使用。两唇音和“ㅡ”无法结合的原因就在于近代韩国语时期发生了圆唇元音化现象。摩擦音和j系列的上向复元音无法结合是由于

近代韩国语时期摩擦音的调音位置向齿茎硬口盖音方向移动所致。另一方面，上向复元音“ㅞ”在语头的位置不和任何辅音结合。“ㅞ”不论是作为语头音节还是非语头的音节，都不能和辅音相结合。开化期的资料中记载着辅音后的“ㅞ”被标记成“ㅟ”。我们可以通过这些记载确认上述内容。

上述的限制条件基本全部都延续到了现代韩国语中。“ㅞ”之所以不能和辅音相连，那是因为除了标准发音法中可以使用“ㄹㅞ”以外，实际生活中所有辅音后出现的“ㅞ”都需要发成“ㅟ”的音。开化期的中部、西北、西南、济州等方言大体上都被认为含有韵素“音长”。虽然仅从韩文的标记上来看很难明确是否存在音长，但是可以从部分例子中推测出一些东西。

“가”中的词干“꺼내다, 넣다, 떨다”标记成了“쓰내다, 늦다, 쓸다”“나”的动词“게시다, 베다”标记成了“기시다, 비다”。现代韩国语中的“ㅟ”和“ㅞ”只有是长元音时才会发生高元音化现象变成“ㅟ”和“ㅞ”。现代韩国语中即使是含有韵素“音长”的方言，一般也只是在语头音节的位置区分音长。现在几乎所有的人们都在向着不区分（音）长短的方向发展。

虽然元音调和现象在开化期已经相当衰退，但现代韩国语中依然存在这种现象。近代韩国语时期的“ㅞ”经历了非音韵化现象，“ㅟ”和“ㅞ”的对立现象消失不见，取而代之的是围绕“ㅟ, ㅞ”和“ㅟ, ㅞ”的对立现象。像“가”一样的元音调和的对立现象主要出现于拟声词和拟态词中。像“나”一样的现象主要出现于连接语尾“-아/어”中。另外，像“다”一样，谓词词干中含有阳性元音时，会出现许多不与“-아”连接而与“-어”连接的现象。这表明随着元音调和的衰退，阴性元音的势力在逐步增强。

# 讲义

## 4차시 현대한국어의 체언과 조사

本节课以体词和助词为中心，讲解现代韩国语语法体系的形成过程。首先，“异形态交替”现象被称为特殊词干交替现象，也就是说体词或末尾音为“ㅎ”的体词在现代语中均变成了单一的词干。“가”中的特殊词干交替体词是“나모, 낚”，变成了“나모, 나무”，“나”中末尾音为“ㅎ”的体词“나랄”经历了单一化现象变成了“나라”。在一部分的方言中罕见地使用了表现“하날”痕迹的“하나이”、“하나토”的形态。

现代韩国语体词的末尾音出现了很多不寻常的变异。以“ㄷ, ㅌ”或“ㅌ, ㄷ”结尾的体词中，“ㄷ, ㅌ”或“ㅌ, ㄷ”变成了“ㄴ”。例子“가, 나, 다, 라”表现出了体词词干的“ㅌ, ㄷ, ㅌ, ㄷ”音发“ㄴ”音的内容。这些单词为何发“ㄴ”的音，原因尚不明确。

在从中世韩国语向近代韩国语转变的过程中，不再区分终声位置上的“ㄷ”和“ㄴ”。虽然发音为“ㄷ”，但标记为“ㄴ”。如果称这种现象为体词末尾音的“除旧化”现象，即体词的末尾音直接变成其他辅音的现象，那么可以说这是“ㄴ”这一文字标记对发音为“ㄴ”的体词末尾音施加影响的例子。

经过这种变化，形成了现代韩国语的体词末尾音不能为“ㄷ”这一限制条件。由于这一限制条件非常有力，以至于外来词中的“t”也变成了“ㄴ”。例如英语单词“로봇”，以“t”结尾，当韩国语的助词“-이”出现在它的后面时没有发[로보티]的音，而是发成了[로보시]。“나”中的单词“슈퍼마켓”也是以“t”结尾的单词，与助词“-에”相结合，没有发[슈퍼마케테]的音，而是发成了[슈퍼마케세]。

从屈折上来看，主格助词的交替形有“-이”和“-가”（他们）在进入到现代韩国语后完全占据了重要的位置。表现“-가”这一助词的例子首次出现在17世纪，即使是近代韩国语的文献中也鲜有主格助词“-가”的例子。在经历了相当长的时间后，才出现在了元音/i/或/j/之后。“가”所示的例子是17世纪文献中表现主格助词“-가”的例子，后面出现了下向复元音“ㅣ”。“나”中的“물이가”含有东南方言中的主格助词“-이가”，“-이”之后添加“-가”形成“-이가”的形式，被用于表示方言中主格助词的形态。在例子“다”中，作为第一人称代词的屈折形态，与辅音连接，除了“나

는, 나를, 나도”之外, “나”与后面的半元音/j/连接形成“내”,之后仍然使用“내가”的形态。

文语体中“-이”和“-가”的这种交替现象采用辅音之后用“-이”,元音之后用“-가”的固定形式。这一现象一直沿用到了现代韩国语中。中世韩国语的无情物或尊称有情物名词之后使用冠词格助词“-어”。“가”中的“어”用于无情物“慈悲(자비)”之后,“나”中表示“世尊(세존)”的尊称有情物后使用“-어”。

进入到近代韩国语时期,作为冠词格助词,“-의”连接无情物而非有情物。最终,冠词格助词“-어”的使用逐渐减少,仅用于名词与名词相结合的构成,即合成名词中。这一内容现在被称为“中间‘어’”,被认为是合成词的标志。“가”中“나무집”表示“挖树的屋”这一意义,没有“中间‘어’”的单词“나무집”则表示“用树制造的房屋”这一意义。

像这样“中间‘어’”出现于名词与名词之间时,表现出了多种多样的语义关系。在例子“가, 나, 다, 라”中,表现出A是B的场所,或A是B的用途或宾语,A是B的起源,或所有者,或A是B的单位等现象,如果合成名词中前面的要素A和后面的要素B之间的语义关系表现出上述“가, 나, 다, 라”的情况,那么中间就需要添加“中间‘어’”。但在单词“칫솔”和“치실”中,前面都出现了相同的词汇“치”,前一要素和后一要素之间的语义关系都是“为了刷牙而准备的‘刷子’”,“为刷牙而准备的‘膏’”。虽然意义相同,但“칫솔”中存在“中间‘어’”,但“치실”中却没有“中间‘어’”。

来看代词。中世韩国语的第一人称代词“나”,第二人称代词“너”他们的主格和冠词格表现相同,都是“나이”和“너이”的形式。上述内容主要通过“声调”来区分究竟是主格还是冠词格的意义。“가”的“나이”发“去声”时表示主格,“平声”时表示冠词格。“나”的“너이”发“上声”时表示主格,发“平声”时表示冠词格。之后主格助词的形态“-가”在元音/i/和半元音/j/之后得到了发展,主格“나이”和“너이”发展成为为了“내가”和“네가”。

最终,在现代韩国语中“나”做主语时用“내가”,表示冠词格时用“내”和“나의”,“너”做主语时用“네가”,表示冠词格时用“네”和“너의”。但由于“ㄱ”和“ㅋ”的发音逐渐不被区分,因此采用“니가”代替“네가”,或者使用“너가”的形式,或者在冠词格上用“니”替代“네”等方式表现出了区分第一人称代词和第二人称代词发音的倾向。

中世韩国语中不存在通过降低自身地位表示谦让的第一人称代词。一直都是使用“나”的形式。表示谦让的第一人称代词“저”首次出现于19世纪后期。代词“저”的起源究竟是什么,现在还不得而知。但这一代词和“나, 너”这种代词一样与助词结合后形成特殊的样子,一直用于现代韩国语中。

“가, 나, 다”中展示出“저”和助词相结合的形态。之前存在的表示“自己”意义的反身代词与“저”的发音一致,因此样子发生改变。在包含主格在内的所有助词结合形态中,形成了“지”这

一高元音化形态，而非“제”。第二人称代词“네”和第一人称代词“내”发音相同，为了规避这种现象，转变成了“니”的形态，上述内容与这一现象类似。在确立主格助词“가”的同时，“未指称”代词“누”发生了变化。“누”与表示疑问的辅助词“고”相结合变成“누고”，整体上形成表示“是谁”的句子。“누고”被固定成一个单词，表现出了“누고, 누구”的形态。但表示主格时并没有发生这种变化，因此未指称代词做主语时使用“누”，冠词格或宾格时表现出了“누구”的交替形。

来看依存名词。从近代到现代出现了许多起源于汉字的依存名词。尤其是标记为“슈”或“수”的依存名词。最初表现出了“-을밖에 수가 없다”的结构，进入到现代后变成了“-을 수밖에 없다”的形式。现在被频繁使用的依存名词有“것”，它从开化期开始就存在异形态“거”。

另外，在与时间有关的依存名词中，起源于“즈음”的“-쯤”也是在开化期左右出现。副词中出现了“아니”缩写为“안”，表示询问原因的“워”以及表示错误的“그릇”等。疑问词中的“엇더하다, 언마, 무삼”等在19世纪时并非表示“未指称”，而是广泛用于表示“不定称”。像“가”中的“엇더케”或“나”中的“무삼, 언마”一样，与其说疑问词是为了指代不知道的对象，不如说具有指向未确定对象的功能。这种用法在19世纪以前很少见。

# 讲义

## 5차시 현대한국어의 용언과 어미

本节课我们通过谓词的活用现象来看一看现代韩国语语法体系的形成过程。首先，介词“-이-”的活用现象在中世韩国语时期属于不规则的活用现象。如“가, 나”所示，中世韩国语的介词“-이-”与后面的连接词尾“-아”或者“-어”相连形成了“-이다”，“-이-”与后面的连接语尾“-고”相连，“ㄱ”被弱化，形成了“-이오”的形式。

这种用法一直延续到了现代韩国语中。“가”所示的“-이라서”、“-이라고”，“나”所示的“-이오”，均可以称为中世韩国语“-이다”、“-이오”等形态的“后代形”。虽然这种形式至今仍然存在，但大体上已整合为统一、规律的活用现象。“아니다”也具有相似的模式。“아니다”原本在中世韩国语时期是由名词“아니”和介词“이”相结合形成的形态，到了现代韩国语中“아니다”作为形容词活用。从起源上来看“아니다”中本身包含介词“-이-”因此“아니다”的活用形中也留有不规则活用的痕迹。

“가”中的“아니라서”、“아니라고”，以及“나”中的“아니오”都表现了中世韩国语的不规则活用现象。现如今“아니다”或“아니어서”、“아니고”等形态更常用。现代韩国语中介词“-이-”位于元音之后可以省略，但这种现象在18世纪末期才开始出现。19世纪时大量出现了上述现象，后来到了现代韩国语时期，元音之后被省略的这一现象则变得更为常见。现代韩国语的敬语法中，通过语法实现的有尊敬主语的主体敬语法和尊敬听话人的相对敬语法。

主体敬语法不论是中世韩国语时期还是近代韩国语时期，都是通过先语末语尾“-시-”来实现。另外，相对敬语法存在多种等级。在6大等级中，年轻人们出现了越来越不使用“하게체”和“하오체”的趋势。区分相对敬语法非格式体“해요체”和“해체”的标准为是否使用了“-요”的形式。虽然“-요”从19世纪末期才开始出现，但很难了解它的起源。

中世韩国语的客体敬语法通过先语末语尾“-습-”来实现。现代韩国语时期的客体敬语法不使用像先语末语尾一样的语法装置来实现。但通过使用表现客体尊敬的词汇来实现。例句“가, 나, 다”中出现了“주다, 드리다, 묻다, 여쭙다, 데리다, 모시다”等，“주다, 묻다, 데리다”是—

般的使用现象，而“드리다, 여쭙다, 모시다”等是表示客体尊敬的词汇，表示客体尊敬的词汇在句子中通过宾语或状语等实现与客体相关的行为，同时展现了尊敬事物和人物的功能。

现代韩国语的终结语尾中，最具特征的是原本为连接语尾但后来却被用作终结语尾的例子。例句“가”展示的是作为连接语尾的“-아”和“-어”。例句“나”展示的是作为终结语尾的“-아”和“-어”。“다”展示的是作为连接语尾的“-지”。“라”展示的是作为终结语尾的“-지”。“마”展示的是作为连接语尾的“-거든”。“바”展示的是作为终结语尾的“-거든”。上述这些原本被用作连接语尾，但由于后句被中断，因此变成了表示句子结束的终结语尾。这些内容在19世纪后期才开始出现，到了现代韩国语时期已完全普及。

现代韩国语语法的一大特征就是来自外语的影响越来越强。特别是外国语的“식역체”广泛浸透到了韩国语的语法中。“被动表现”就是具有代表性的内容。在现代韩国语中经常使用“依据什么什么”的表达方式。这相当于是英语的前置词“by”引导的被动句或者与日语的“に依(よ)って(ni yotte)”这一表达方式之间存在联系。另外，关于被动，经常使用“双重被动”，即在被动形上再次结合被动构造的形式。

产生这种现象并非是由于在被动结构中添加被动派生后缀形成被动词，而是由于随着“-아지다”和“-어지다”使用比率增加，出现了大量在被动词的基础上添加“-아지다”和“-어지다”例子。现代韩国语的语法表现中也有不少受到了日语的影响。

例如，表示比较的助词“보다”来源于近代韩国语的助词“-보다가”，“보다”也作为副词使用。另外，助词“뿐”出现于句子的前面。“가”是表示比较意义的助词“-보다”。“나”是作为副词使用的例子。例句“다”展示的是“-뿐”作为助词使用的现象。例句“라”展示的是“뿐만 아니라”这一结构中“뿐”独立使用的现象。也可以在日语中找到上述这些现象，“보다”与日语的“より(yori)”有关，“뿐만 아니라”与日语的“のみならず(nominarazu)”有关。

# 讲义

## 6차시 현대한국어의 방언

本节课学习现代韩国语的方言。中世韩国语时期，不同地区使用的韩国语也存在着差别。而且在近代韩国语时期可以看到许多资料都是以南部地区为中心，展现了方言的词汇和表达方式。但是确认方言的全貌却是始于20世纪之后活跃的方言调查。

方言虽然能体现出语言地区分化的状态，但它也同时展现出过去语言的使用痕迹以及独立发生变化的过程。因此，了解韩国语的方言，对整理归纳韩国语的历史有着重要的意义。韩国语的方言大致可以分为六大方言圈。

即西北方言、东北方言、西南方言、东南方言、中部方言、济州方言等。概括来看，西北方言和东南方言具有历史渊源，都存在音高重音。在西北方言和中部方言、西南方言中都有音长，西北方言中不发生口开音化现象。济州岛方言相距较远，与陆地方言之间存在很大不同，没有音高重音。朝鲜半岛全境的方言虽然可以这样划分，但光复之后，韩国和朝鲜已分开70余年，南北之间的语言差异也在逐渐加深。

像这样，把韩国语方言分成六部分是从大的框架上进行的分类，仔细来看，虽然还需要分成更小的部分，但由于本节课的重点在于把方言圈的地理特征与韩国语的历史联系在一起并进行理解，因此与其过于详细地描述方言之间的差别，不如从音韵和语法等方面来分析其存在的显著特征。

首先来看音韵相关的内容。对于辅音来讲，方言之间的差别不是很大。但使用东南方言的某些地方，其辅音体系中不存在“ㄴ”。在这些方言中无法区分像“쌀”和“살”一样的内容。另外，随着近代韩国语时期口开音化现象的出现，摩擦音“ㄷ, ㅌ, ㄸ”的调音位置由齿茎音转变成了硬口盖音。但在西北方言中，却依然是齿茎音。

在这个方言中，虽然没有发生口开音化现象，但取而代之的是发生了脱落半元音/j/的变化现象。例子“가”展示的是“ㄱ, ㅓ”和“j”相结合造成“j”脱落的现象。例子“나”展示的是把词汇中原本的摩擦音变成喉塞音的现象。在元音的历史变化中，“·”的非音韵化及“ㅁ, ㅂ, ㅅ, ㅆ”等下向复元音的单元音化都是极具特征的现象。最终，几乎所有的方言中“·”和j系列的下向复元音都消

失不见。但济州岛方言中还保存着“·”的使用。

“가”中的济州岛方言词汇在中世韩国语的文献中也是以“·”的形式出现，因此可知，在济州岛的方言中一直保持着“·”的使用。“나”中的“~(이아래아)”展现了半元音“j”和“·”结合形成复元音的现象。中世韩国语的语型虽然是“여덫, 여덫, 여섯, 여섯”，但考虑到出现在复元音“~(이아래아)”之后的元音“·”从元音调和的层面来看，反倒是有可能中世韩国语中含有“~(이아래아)”的“으덫”变成了“여덫”“으섯”变成了“여섯”。

对于其他的元音，我们简单了解一下各地区的特点。除了庆尚北道部分地区之外，东南方言中很多的地方不区分“ㅡ”和“ㅣ”。中部以下的所有方言中“ㅈ”和“ㅉ”已经朝着不做区分的方向发展。在西北方言和东北方言中，“ㅡ”和“ㅣ”，“ㅈ”和“ㅉ”的对立呈现出中和的趋势。

从以上变化可以看出，韩国（音的）高低的辨别正在向减少的方向变化。而在朝鲜圆唇性的辨别却呈现减少的现象。这一点非常有趣。从长远来看，单元音的数量可能会减少。中世韩国语中存在用音的高低，即声调来区分意义。在很多的方言中，这种声调已消失不见，变成了音长的形式。但并非所有的方言都是如此。在西北、西南、中部方言中音长具有辨别能力。但在西北、东南方言中声调依然具有辨别力。在济州方言中不论是声调还是音长都不具备辨别能力。东北方言中的声调和中世韩国语的声调之间存在规律性的对应关系。

东南方言的声调因地制宜，但北方有低调、高调、低高调等三种声调类型。而南方地区只有低调和高调等两种声调类型。虽然中部、西北、西南方言中的音长具有辨别能力，但主要在第一音节上有所区别，在中部方言中连这种区别都正在逐步消失。方言中还出现了“语中辅音”。“语中辅音”出现于中世韩国语时期，之后消失在中部语中。这些词汇之所有受到关注，是因为它们在方言中表现出不同的历史音韵变化结果。

这里展示的是相当于“语中辅音”的“ㄱ, ㅁ, ㄴ”。中世韩国语有些单词的“语中”部分含有“ㅇ”或“ㄱ”，但现代韩国语中不存在这种现象。如“가”所示，中世韩国语的“물애”由更早之前的“물개”上变化而来。如“나”所示，可以发现中世韩国语的形态“남”在方言中得以保留下来。中央语中不存在“语中”部分含有“ㅁ”的形式，但有些方言中却存在这种实例。如“가”和“나”所示，中世韩国语中含有“ㅁ”或“ㅂ”的这些单词到了现代的中央语中由于环境的影响变成了/w/但在一部分方言中却保留了“ㅁ”的形态。

中央语中不存在“语中”部分含有“ㄴ”的形式，但有些方言中却存在这种实例。如“가”和“나”所示，中世韩国语中含有“ㄴ”的这些单词在许多的方言中都已消失不见，但在一部分方言中却保留了“ㄴ”的形态。

下面来看语法相关的内容。主格助词的标准形态是“-이”和“-가”，在其他方言中也是如此使

用。但根据方言的不同，也会出现使用其他形态的情况。

如“가”所示，在西北方言中用“-래”，如“나”所示，在黄海忠南等中部方言地区使用“-라”，如“다”所示，在西北、中部方言中使用“-리”，如“라”所示，在东北、东南、中部方言中使用“-이”，如“마”所示，西北、东南方言中的开音节之后使用“-이”。宾格助词的标准形态是“-르， -을， -를”，全国地区都是如此使用。但根据方言的不同，也会出现使用其他形态的情况。如“가”所示，在东北、中部方言中用“-으， -르”，如“나”所示，在东南方言地区使用“-으를， -(으)르， -(으)로”。虽然冠词格助词标记为“의”，但在所有的方言中都发成“ㄷ”的音。

在东南、西南方言中也使用其他比较特别的冠词格助词形态。终结语尾根据句型可以分成陈述式、疑问式、命令式、请求式、感叹式等根据相对敬语的等级细分。根据方言的不同，有很多与标准语存在差别的终结语尾。这里以陈述式终结语尾为对象，介绍几个例子。方言的陈述式尊敬终结语尾如画面所示。此外，方言的陈述式非尊敬终结语尾也如画面所示。

到目前为止所讲的各方言的语法形态不包括济州方言，济州方言的语法形态和词汇都存在很多特别的地方，所以需要单独研究。如画面所示，在济州方言中，表示“进行”或“状态持续”的表现形式是“-았/었-”，表示“完成”的形式是“-엇/앗/랏-”，表示“意图或推测”的是“-으크-”等，我们可以整理出上述的先语末语尾。济州方言中的词汇也有不少有趣的东西。比如画面中所展示的这些。